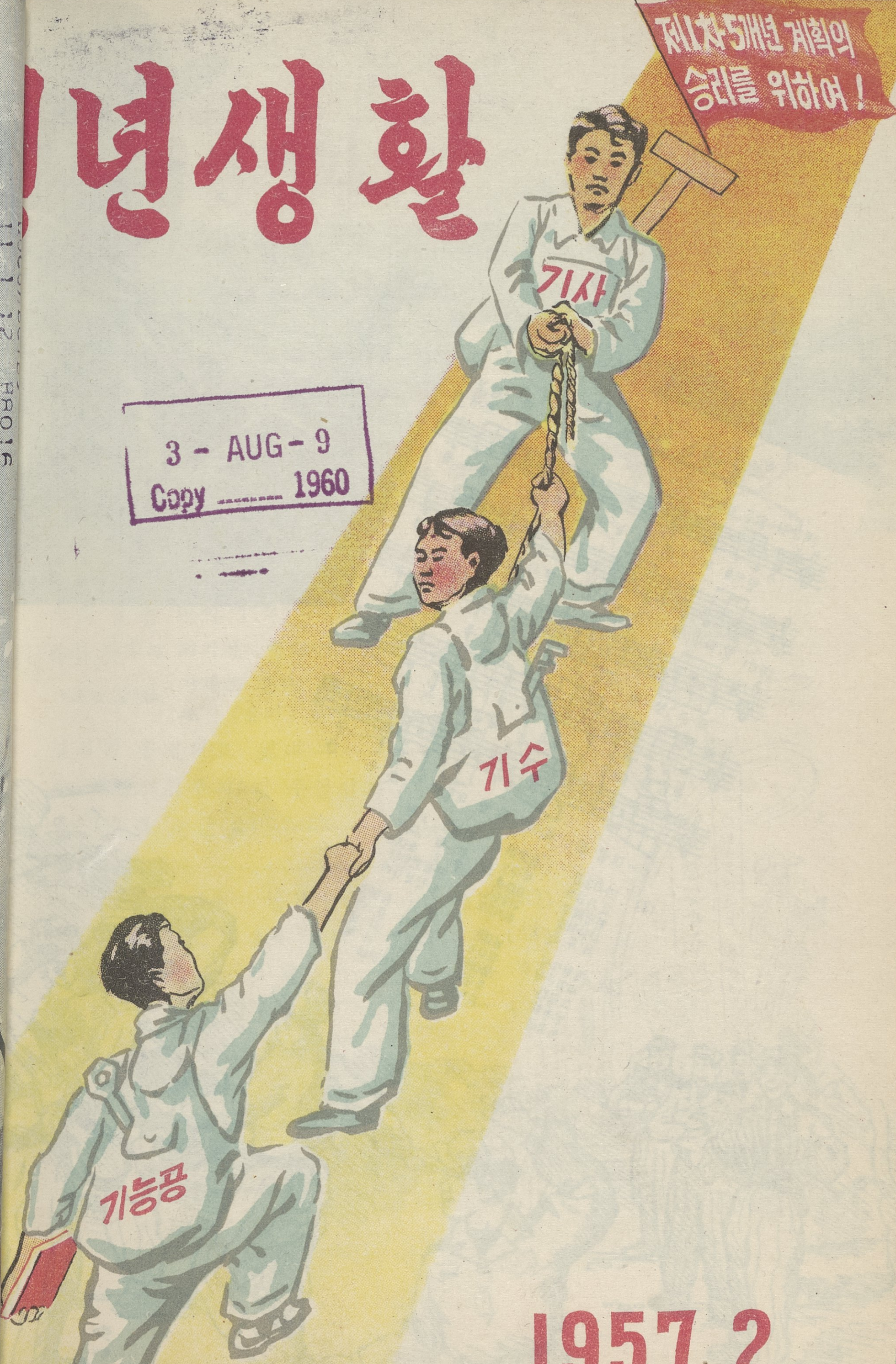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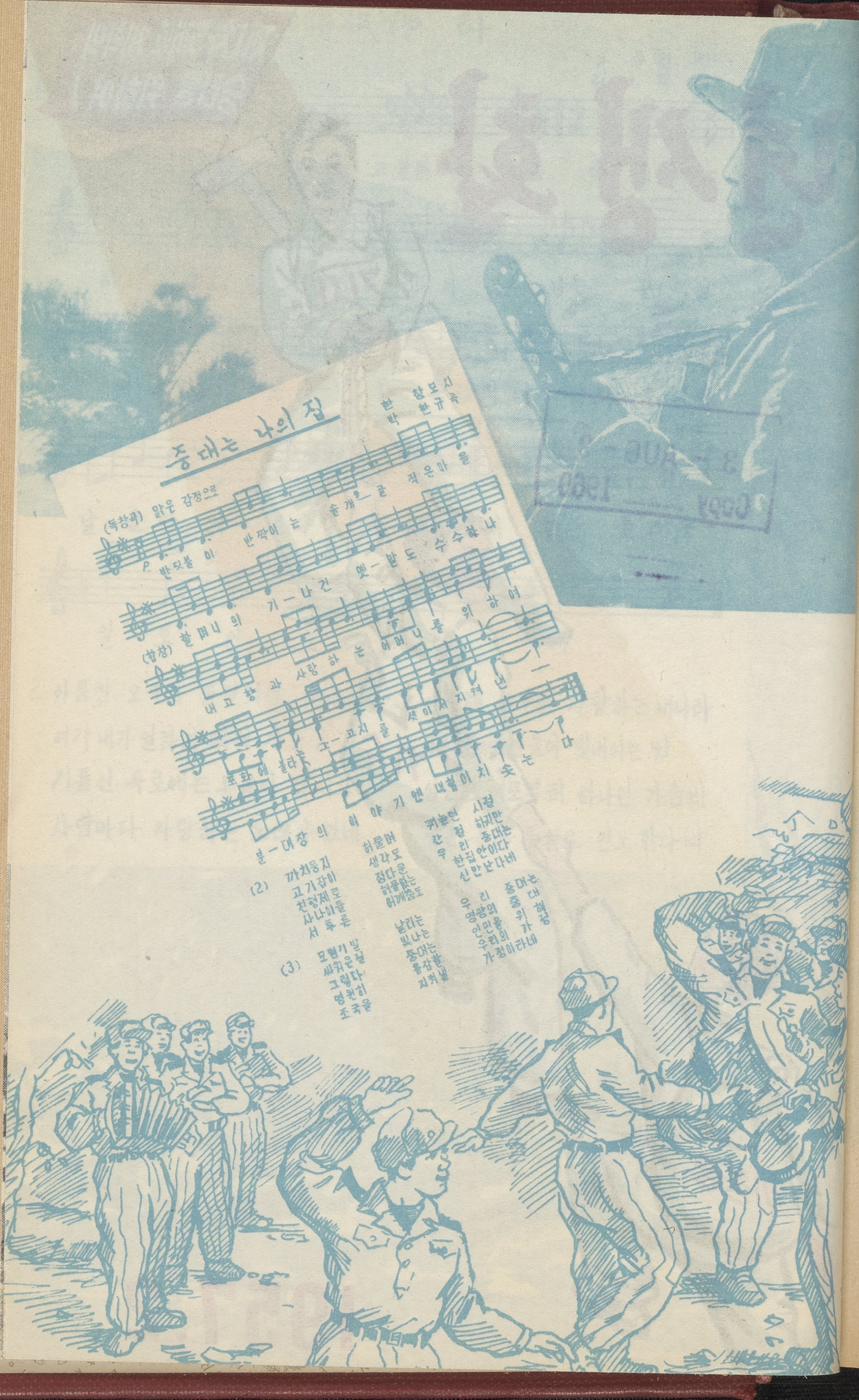
년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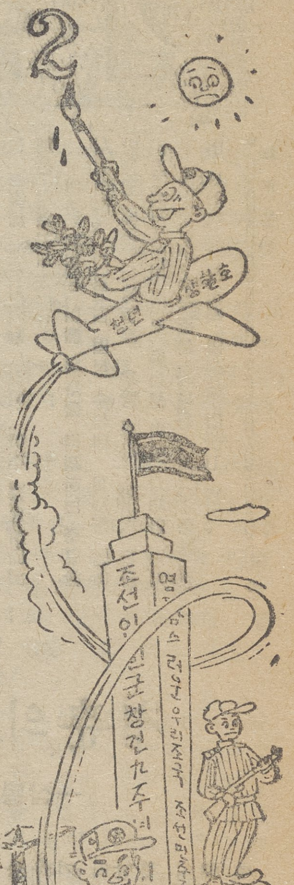
1957.2



청년생활

1957. 2

조선 민주 청년 동맹 중앙 위원회 잡지



차 례



평남도 농업협동조합관리 일'군대회에서 하신 김일성수상의 말씀을 받들고

김일성 수상께서는 지난 一월 二二일 평남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 대회에서 우리 나라 농촌 경리의 금후 발전을 위한 기본 방향을 다시금 천명하시였다。

김 일성 수상께서는 첫째로 지난 시기 우리가 쌓은 경험과 성과들에 의거하여 수전 지대들에서의 관개 시설의 복구 확장과 랭상모의 확장、륙전 지대들에서의 옥수수 재배 면적의 계속 확장을 위한 사업 등을 활발히 전개할 것을 가르치였으며 둘째로 농촌 경리에서 기술의 락후성을 극복하고 선진 기술을 적극 도입 보급하여 정당 수확고를 훨씬 높일 것、그리고 세째로 농촌 경리의 우월성을 충분히 발휘시키기 위하여 농업 협동 조합들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교시하였다。 특히 김 일성 수상께서는 우리 나라 농촌을 기술적으로、문화적으로 급속히 개화 발전시킴에 있어서 지식 청년들이 놀아야 할 보다 큰 역할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농촌에 고착시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재삼 강조하시였다。

一월과 二월은 이해 농사를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지금 김 일성 수상의 교시를 높이 받들고 농촌 청년들은 우량 종자 확보、자금 비료 생산 확보、건모 육성을 위한 자재와 농기구 준비、관수 수로준설 공사등 금년도 영농 준비 사업에서 창조적 열성을 다하고 있다。

청춘의 정열을 대지에!

—삼봉 농업 협동 조합을 찾아서—

새 해의 첫달이 기우는 어느날 기자는 평남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수상의 연설을 받들고 농경지 복구 확장에 적극 참가할 것을 전국 청년들에게 호소한 삼봉 농업 협동 조합 민청원들을 찾았다.

관리 위원회가 있는 칠동 마을 민주 선전실 앞마당에서 새 해 영농 준비에 바쁜 조합 민청 위원장을 비롯한 젊은 조합원들을 만난 때는 낮경이였다.

민주 선전실 앞길로는 두엄을 실은 달구지들이 분주히 지나 가고 뜰악 이곳 저곳에서는 선종 사업들이 한창 버려지고 있었다.

—전국 농촌 청년들에게 호소한 우리 조합 민청원들의 투쟁 목표가 바로 이겁니다—

민주 선전실 문앞 게시판에 나붙은 결의문을 가리키며 민청 위원장 고 영관 동무는 기자에게 말했다.

게시판에 또박 또박 씌여진 결의문은 이 조합 청년들의 억센 힘과 불타는 정열을 말해 주고 있었다.

—우리 조합 앞에는 금년도에 작년보다 800톤이나 더 많은 알곡을 생산할 과업이 나섰지요. 이것을 실행하는 고리는 농경지 복구 및 확장 공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의 힘으로써 이 공사를 도맡아 완성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민청 위원장의 말대로 농경지 복구 확장은 이 조합의 알곡 증산의 가장 중요한 예비이다. 이 공사가 끝나면 금년도에 300톤이란 알곡을 더 낼 수 있다.

평남도 농업 협동 조합 관리 일'군 대회에서 하신 김 일성 수상의 연설은 이곳 조합원들과 청년들의 증산 열의를 더욱 높여 주었다. 그리하여 이들은 5천 6백 메터의 인수로와 배수로를 굴설할 것, 3천메터의 수로를 정비 확장할 것, 121정보의 수리 불안전답을 수리 안전답으로 할 것, 65정보의 밭을 논으로 전환시킬 것, 백 여 정보의 농경지를 홍수의 피해로부터 보호할 것, 과수 재배 적지인 백 정보의 무림 야산을 개간할 것, 6,3정보의 전쟁 피해지를 복구하고 4백 89정보의 포전을 기본적으로 보수할 것, 등을 계획 세웠다.

이는 실로 방대하고도 어려운 과업이다. 그러나 난관과의 투쟁속에서 단련된 이곳 청년들은 이 어려운 과제를 자기들의 힘으로 완수할 것을 결의하고 나섰다.

이들은 오늘 이 공사에 필요한 2만 현 공수의 로력을 청년들 자체의 힘만으로 담당하여 4월 25일까지 수행하려는 것이다. 결의문을 단숨에 읽고난 나는

—참 훌륭하군요. 그런데……—하는 의심을 가졌다. 어린 눈치를 알아 차린 민청 위원장은—반드시 해내고야 말 것입니다. 우리는 작년에도 지금보다 못지 않게 어려운 과업들을 해낼 수 있었지요. 문제는 창조적 열성과 로력에 달렸지요—하고 자신있게 말하였다.

사실 이곳 조합 청년들은 지난 1955년 여름에 진행된 평남 관개 2계단 공사 5호 간선 절토 작업에서 로력적 위훈을 떨쳤다. 당시 조합앞에는 수로의 길이 150메터에 토량 2만 5천 9백 여 립방 메터의 절토 작업이 제기되였다. 그때도 이곳 청년들은 어렵고 힘든 공사를 맡았다. 그들은 청년 돌격대를 조직하고 로력 경쟁을 전개했다. 이렇게 하여 하루 작업 기준량을 300~400%로 높이여 27일간에 할 공사를 불과 9일간에 끝내면서도 4천 200공수의 로력을 절약했던 것이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초부터 40일간 진행한 5호 간선 철동 양수장 공사에서도 역시 그들은 추위와 싸워 이기면서 토공 작업을 120~140%로 능률을 높이였다. 이러한 로력적 성과는 민청의 높은 찬양을 받았다. 민청 중앙 위원회는 그들에게 《영예의 등록》 표창을 했던 것이다.

이것은 그들을 창조적 로력에로 더욱 고무하였다. 지난해 70정보의 밭을 논으로 풀었으며 4정보의 휴경지와 기타 전쟁 피해지를 복구하여 300 여 톤의 알곡을 더 증수하였다. 이와 같은 성과는 금년도 계획 수행을 위한 굳은 자신심을 이들에게 주었다. 작년도의 성과와 경험에 기초하여 이들은 증산 경쟁을 군중적 운동으로 전개하며 힘들고 품이 많이 드는 작업을 기계화하여 로동 생산 능률을 130%로 높이는 문제, 공사에 소요되는 일체 도구와 10대의 밀차, 20대의 따찌까를 사용할 수 있는 온갖 준비를 2월 1일까지 끝내는 문제등 공사에 참가할 청년들의 로력적 열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다. 특히 이들은 선진 영농 기술 습득에 커다란 주목을 돌려 그의 습득을 위한 구체적 대책을 세우고 있다. —우리들에게는 력량이 있습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힘든 일의 앞장에 서는 젊은 투사들이며 자기의 맹세를 항상 빛나게 수행하는 자랑찬 민청원들이니까요… 저기 징창'벌 아득한 지평선에 아지랑이 잔잔히 피여 오를 그때면 이 결의문 실천의 불꽃이 한창 일겝니다. 그때 한번 다시 오십시요……—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민청 위원장의 말은 해낼 수 있을까? 하는 당초의 나의 기우를 완전히 깨뜨려 버렸다.

그렇다! 증산에로 달리는 그들의 젊은 힘은 태산이라도 무찌르고야 말 것이다.

리 두 형

행복의 씨앗을 대지에!

—은산군 남양 농업 협동 조합에서—

해'살이 갓 퍼져 지붕에 살덮인 눈들을 붉게 물들인 아침이였다.

훈훈한 집안에서는 늙은이들과 나어린 녀성 민청원들이 선종 작업을 하고 있었다.

방 웃목에는 팔뚝만한 옥수수들이 가득이 쌓여 있다.

작업반원들은 옥수수 이삭을 헤쳐서 밥상우에 펴고 좋은 것 나쁜 것을 골라내고 있었다.

—이게 바로 백색 마치종이예요.— 가랑머리를 한 그중 나어려 뵈는 녀성 민청원이 밥상 우에서 잠시 눈'길을 떼고 말을 이었다. —작년에 바로 이 종자를 심어 우리는 정당 6톤 500키로라는 놀라운 수확을 얻었지요. 그러나 금년에 더 높은 수확을 내려고 해요. 그럴라면 무엇보다도 씨앗을 제일 좋은 것으로 심어야지요—

그들은 조합 채종포에서 거둔 옥수수 이삭들에서 그 가운데 불룩한 부문만 따고 있었다. 지난 해의 경험은 이런 씨앗이 머리와 끄리 부문의 씨앗들 보다 더 큰 열매를 낳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 조합은 벌써 4톤 500키로의 우량한 백색 마치종을 마련하였다.

집안에서 나온 기자는 두엄을 가득 실은, 길게 늘어선 달구지 행렬을 만났다. 아침에 선전실에서 이미 낯익은 초중 졸업생들인 김 병호, 김 승호 동무들이 유달리 끌끌해 보인다.

김 승호 동무는 두엄을 밭에다 내고 돌아 오는 길에 기자에게 이런 말을 하였다.

—비료는 곧 쌀이지요. 우리가 작년부터 마련한 곡초 퇴비는 2,800톤에 달합니다. 이밖에도 소와 돼지 우리에서 받아낸 800톤의 거름, 그리고 2백톤의 인분과 150톤의 초목회 등 우리의 자급 비료는 이루 태산이지요—

그러자 이번엔 김 병호 동무가 그의 말을 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급 비료를 아직 더 준비해야지요. 이번에 김 일성 원수께서도 간곡히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동기 자급 비료를 더 많이 생산해야 합니다. 그래 우리는 새해 벽초부터 옥수수'대와 콩'대를 썰어서 눈'길에 펴기 시작했는데 이것을 좋은 비료로 만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때마침 점심 시간이 되여 두엄터에선 수많은 젊은 조합원들이 우루루 몰켜서 신작로로 나온다. 그런데 그들은 그냥 곧바로 집으로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마치 군인들이 제식 훈련하듯, 발을 굴루면서 걷는다. 이것을 희한하게 생각하는 기자의 눈치를 채였던지 김 승호 동무가 다시 말머리를 떼였다.

—일터로 나가고 들어 올때 저렇게 하는 것은 우리 조합 민청원들의 버릇처럼 되여 있지요. 길에 널려져 있는 곡초'대 썩레기들을 꽁꽁 밟아서 더 빨리 썩히게 하자는 심정들입니다. 썩레기를 썩힌 다음 우리는 그것을 시궁창흙이나 도랑흙과 섞어서 높이 쌓아 올리지요 그리고 간간히 석회 질소도 섞어서 수일간 초재운후 세차례에 걸쳐 약 20일 건너큼 한번씩 뒤집니다. 그러면 봄에 가서 훌륭한 퇴비가 되지요…

조합 민청원들의 봄을 위한 지성은 밤에도 그칠새 없었다. 영농 크루쇼크원들의 모임에서는 전번때 군에 강습갔던 김 태호 동무가 옥수수의 《공기 온열 난종 처리》를 가르치고 있었다. 이것은 옥수수 씨앗의 발아 시험을 앞두고 그 씨앗이 잘 싹트게 하는 방법인데 통조림 통에 씨앗 200알씩 넣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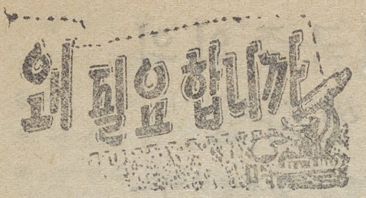
이 방법은 후에 옥수수를 파종할 때 그들을 크게 도와 줄 것이였다.

약동하는 조합 민청원들의 심장은 피곤을 모른다. 마을 야장'간에서는 풀무소리 메소리가 요란하다.

행복의 씨앗을 대지에 뿌리기 위한 그들의 준비 사업은 이렇게 밤이 지새도록 그칠줄 모른다.

본사 기자 한 봉린





오늘 우리는 사회주의를 건설하고 있다. 이는 우리들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하는 일이며 우리 나라를 하루 속히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일이다. 우리가 건설하고자 하는 이 사회주의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더 높은 기술과 창발성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가 행복하게 즐겁게 잘 살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물건을 더 많이 생산해 내야 한다. 그러자면 높고 훌륭한 기술을 가지고 로동 생산 능률을 훨씬 높여야한다.

기술의 힘

기술이란 우리가 상상도 못하리 만큼 기적을 낳는 힘을 가지고 있다.

희천 기계 제작소 선반공 윤 승후 동무는 훌륭한 혁신자이다. 그는 플레쓰브 바이트를 생산에 도입하여 종전보다 12배의 능률을 냈다.

기술은 시간까지 앞당긴다.

로력 영웅 조 두실 동무는 다기대 발파법을 도입하여 하루에 555톤의 락광을 보장함으로써 3개년 계획을 1년 3개월이나 앞당겼다. 또한 전 성복 동무가 지도하는 협동 조합내 청년들은 랭상모를 6정보에 이앙하였는데 정당 9톤 500키로그람의 생산을 더 내였다.

이 모든 것들은 기술의 힘의 결과이다.

그러니 기술이란 얼마나 큰 힘을 가진 것인가!

기술은 왜 필요한가?

우리 나라 공장, 기업소, 농촌들은 조선 로동당과 공화국 정부의 옳바른 지도에 의하여 놀랄만큼 발전하여 가고 있다.

우리의 공장, 기업소들은 우리 나라에서 일찌기 보지 못하던 우수한 선진 기술로써 새로 건설 확장되고 있다.

이와 같은 선진적인 기계들을 다룰려면 새로운 기술을 가진 기술자들이 많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 건설에 비하여 기술 인재가 부족된다. 중공업 부문 하나만 보더라도 이 부문에 필요한 기사, 기수의 수요를 50%밖에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새롭고 높은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다음 농촌 경리 부문을 보자!

우리 나라 농촌 경리는 오늘날 사회주의적으로 개조되여 가고 있다. 지난 시기 우리들은 농촌 경리를 협동화하는 사업에서 큰 승리를 얻었다. 그런데 농촌 경리의 사회주의적 개조는 협동화로만 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반드시 기술적 개조가 병행되여야 한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농업은 기술적으로 아직도 락후한 처지에 있다. 이것은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는 사업에 큰 장애로 된다. 때문에 평남도 농업 협동 조합 관리일'군 대회에서 김 일성 수상께서는 《농촌 경리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려면 경리 형태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하여서는 가능한 모든 선진 영농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앞에는 농촌 경리를 기술적으로 개조하는 과업이 중요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라고 하시였다. 그러므로 오늘날 젊은 사회주의 건설자들인 청년들이 훌륭한 기술을 소유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그러면 청년들은 기술을 배우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선진 기술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없애고 선진 기술을 대담하게 계획적으로 자기 공장, 자기 지방의 실정에 알맞게 도입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우선 기술 학습과 기능 전습에 빠짐없이 참가하며 로련한 기술자들과 로동자들을 존경하며 그들에게서 선진적 작업 방법과 경험들을 배워 증산과 절약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또한 청년들은 일반 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며 기술 서적들을 많이 읽는 한편 야간 기술 전문 학교, 로동 청년 학교, 농촌 청년 학교 및 각종 통신 교육망들에서 배워야 한다.

청년들은 오늘 기술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으뜸가는 애국적 임무라는 것을 명심하고 기술을 소유하기 위하여 정열적으로 있는 재능과 지혜를 남김없이 발휘하여야 한다.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완강성과 인내성이 있어야 한다.

홍 순 권

당신들은 애국주의의 열렬한 체현자들

—탄생 아홉돐을 맞는 인민군 용사들에게—

조 령 출

애국주의! 이는 인간의 가장 고매한 정신의 하나이며 그 사상이다.

애국주의! 이는 우리 나라의 전통적 정신의 하나이며 그 사상이다.

우리가 조국을 사랑하는 그 사상을 말할 때 우리는 인민의 생명과 생활과 행복과 평화를 함께 생각하게 된다.

국토를 지키며 내나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며 그 인민의 평화스러운 생활을 지킴은 곧 범박하게 생각한 애국주의이다.

나는 존경하는 우리 인민군 장병들을 언제나 생각한다. 애국주의란 말 가운데 나는 언제나 당신들을 생각한다.

당신들은 오늘도 이 시각에도 조국 보위의 성스러운 초소에 서 있다. 살을 깎는 눈보라 사나운 겨울 밤에도, 어깨를 지지는 여름 염천의 불'별 아래서도 당신들은 영롱한 눈'빛으로 강철의 뜻으로 영광스러운 우리 나라를 지키고 있다.

당신들의 모든 형상은 나에게 있어 애국주의의 생신한 형상으로 떠오른다. 당신들에게서 나는 범박한 전통적인 애국자들의 피'결이 숨쉬고 있음을 듣는다.

살수(薩水, 지금의 청천강) 싸움에서 수(隨)나라 침략 대군을 격파한 을지 장군(乙支將軍)의 기백도, 남해 왜적을 격파함으로써 조국을 수호한 리 순신 장군의 지략도, 을사 조약 이후 자기의 빛나는 생애를 항일 투쟁에 바친 그 모든 혁명 선렬의 투지도, 나는 그 모든 고귀한 상속, 더없이 아름다운 품성들을 오늘의 당신들 가운데 본다.

다시금 내마음 설레이는 추억으로서 말하노니, 지난 조국 해방 전쟁 시기에 당신들이 이룩한 위업이야말로 애국주의 정신의 새로운 화폭이며 새로운 금자탑인 것이다.

인류 력사에서 애국주의의 새로운 형상들을 당신들은 보여 주었다.

《예속》을 원치 않는 인민의 위력이 얼마나 강대한가를 당신들은 몸소 당신들의 실천으로써 세계에 보여

주었다.

검 창걸, 리 수복, 황 순복…수 많은 전투 영웅들의 전설을 나는 잊을 수 없다. 오늘 성애 나무에 수정 백화로 된 산이며, 들이며, 흰 눈 나리여 해'볕에 반짝거리는 산정 마루, 마루…완연한 련봉을 바라볼제 어찌 지난 시절의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가슴 뜨겁지 않을 것인가!

이 땅에 강도 미제의 만행이 사람들과 강산의 살과 심정을 아프게 깎으며 찌르며 헐어나리고 있었을 때, 고통을 고통으로 여기지 않고 죽음을 죽음으로 여기지 않고 철천의 그 적들을 무찔러 승리의 축포 천하에 울렸음은 그 누구의 힘이였던가!



적의 땅크 밑으로 수류탄을 물고 나아간 용사들!

적의 화점 앞으로 자기의 젊은 가슴을 벌리고 그 화구를 막은 사람들!

자기의 단 하나인 생명을 포탄처럼 던져 적을 쓸어 엎고 조국의 기'발을 지킨 영웅들!

자기가 맡은 모든 초소에서 최고 사령관의 명령을 끝까지 충직하게 지켜낸 전사들!

바로 그것은 조선 인민군, 당신들이다.

굴할 줄 모르며 패할 줄 모르며 피곤할 줄 모르며 조국을 위하여선 자기의 그 모든 것을 아낄 줄 모르는 고상한 당신들이다.

1,211고지, 351고지, 어찌 그것 뿐이랴! 이 땅의 수많은 봉우리 봉우리들은 오늘도 말하고 있다. 보라! 여기 불멸의 젊음이 있다. 저 제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전쟁에 대한 인식, 전술에 대한 인식, 싸우는 인민들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게 하였으며 완전히 혀를 빼물고 두 손을 들게

하였다. 그들의 낯은 창백해지고 죽어가는 자의 딸꾹질로 괴로워졌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는 유심론도, 신비론도, 불가지론도 아니다. 바로 조선 인민군 당신들이 보여 준 전설들이다.

나는 한가지 례를 들겠다.

포연탄우로 하여 풀 뿌리, 나무 뿌리, 들맹이, 바우 그 모든 물체가 타고 으스러지고 그 흔적을 찾을 길 조차 없는 그러한 화선과 화선에서 화선 악기를 만든 사실을…

당신들은 바요링줄이 없는 곳에서 당신들의 지혜로, 락천주의로 바요링줄을 만들어 민요를 연주하였다. 관현 악단이 없는 곳에서 관현 악단을 만들어 냈다.

천재적 예술가들이 화선 악단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당신들은 전투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전투 가운데서 예술을 하였고 과학을 하였고 모든 부문에 걸쳐 신인이 육성되였다.

나는 전방의 동무들로부터 자조 편지를 받는데 그 편지의 주인공들은 문학을 지망하는 청년들이며 그 중에는 훌륭한 시작품들을 써 보내 주기도 한다.

수 많은 작가들이 화선에서 탄생되였다. 그들은 시를 쓰기 위해서 시를 쓴 것이 아니라 자기의 가슴에 넘치는 시정(詩情)을 참을 수 없이 자기들의 적은 노트 가운데 깨알처럼 잔 글씨로 박아 쓴 것이 시가 되고 노래가 되는 것이였다.

그 시정이란 어떤 것인가?

산천과 초목과 아침의 태양을 노래하는 정서이며 고향의 그리운 애인들, 부모들, 친구들을 노래하는 정서이다. 그들이 쓰는 시의 주제와 내용과 쓰젤은 다양하다. 허나 그 어떤 작품에나 그 어떤 편지에나 관통해 흐르고 있는 것은 힘차고 싱싱한 애국주의의 감정인 것이였다.

복돌은 다듬어 그 어떤 것을 만들지라도 그 본질은 언제나 맑은 복으로 있는 것처럼 당신들의 시정 그것은 어떤 형식의 노래로 되던지간에 그 정신은 언제나 애국주의로 뜨겁고 순결하다.

같은 말, 같은 시어일지라도 그것이 당신들의 입에서 울릴 때 그것은 한층 힘 있고 광채를 뿜는 말과 시어로 된다.

나는 《조국 보위의 노래》를 많이 듣는다. 리 면상 동지와 함께 창작한 이 노래의 멜로디를 나 자신도 좋아한다.

6•28때 서울로 들어 갈 때도 이 노래를 듣고 락동강 전선에서도 이 노래를 들었다. 후퇴 시기에도 이 노래를 들었다.

나에게 지금도 력력한 기억이 떠오른다. 내가 위원에서 압록강을 건너 강 서쪽 기슭을 끼고 며칠을 걸어 집안으로 해서 다시 강을 건너 만포로 들게된 것은 치운 밤이였다. 나와 우리 예술 부대 동무들은 실상 피곤하였다.

이때 만포 시가를 전진하는 우리 인민군 부대들의 노래가 울리였다.

가슴에 끓는 피를 조국에 바치니
영예로운 별'빛이 머리우에 빛난다.
나가자 인민 군대 용감한 전사들아
인민의 조국을 지키자
목숨으로 지키자

이 노래는 뜨거운 불'길을 나의 가슴에 담아 부었다. 인민 군대가 부르는 이 노래는 그들의 불타는 애국적 정신에 의하여 한없이 억세고 신성

한 음향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두다렸다.

《나가자!》 그렇다 재진격의 모든 장비를 갖추고 우리 인민 군대는 개고개를 넘어 희천, 구장으로 다시금 나가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모두 함께 끓는 피로써 노래를 불렀다.

어느 고지에선가 이 노래를 부르며 그 고지를 사수하였다는 이야기를 나는 들었다.

모든 전우들이 희생되였다. 몇 동무만이 남았다. 탄환도 수류탄도 다 떨어졌다. 적은 고지를 빼앗자고 발악한다. 이럴때 한가지 남은 무기 그것은 《노래》이였다.

그들은 이 노래를 불렀다.

인민의 조국을 목숨으로 지키자

그들의 우렁찬 노래, 그들의 천지를 진동하는 위대한 정신의 노래는 원쑤들을 압살하였다. 그들은 영광스러운 조선 로동당과 조국의 이름을 부르며 끝내 그 고지를 사수하였다.

그들에게 무한히 큰 힘을 준 것은 그의 원천은 조선 로동당이며 영광스러운 조국—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였다.

그들은 조국을 생각할 때 당을 생각하며 당을 생각할 때 조국을 생각하였다.

그들이 누구인가? 세상에 더 없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그들은…

친근한 벗들이여! 나에게 다시 한번 노래할 영광을 달라!

그들은 바로 우리의 불패의 힘 조선 인민군 용사들이니…

나는 당신들에게 오늘 다시 한번 뜨거운 신뢰와 축하와 영광을 보낸다.

당신들의 탄생 아홉 돐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당신들에게 하고 싶은말…
나의 사랑이여, 인민의 사랑이여,
애국주의의 열렬한 체현자들이여!

1957.2.8



평화 초병의 이름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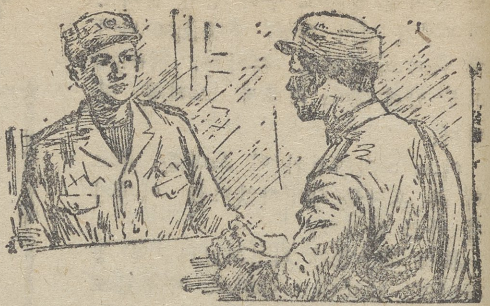
공화국 영웅 신 중순



초병의 영예는 크다! 이것은 아주 평범한 말이다. 허나 어찌 감격 없이 할 수 있는 말이랴! 이 말로 하여 바로 초소에 서 있는 나와 나의 전우들은 아침 저녁으로 하루에도 몇번 그 젊은 가슴들이 하냥부풀어 오르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 인민들이 승리한 조국 땅 우에 행복한 살림을 꾸리며 사회주의를 건설할 수 있는 것도 오직 지난날 전투에서 우리들이 피흘려 싸운 때문이며 또한 오늘 우리들이 초소를 굳건히 지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이 나에게 안도의 마음을 허용할 수는 없다. 어찌 한시인들 잊으랴! 고향 경상도에서 이 시각에도 소작살이의 멍에에 눌려 온갖 굴욕을 겪고 계시는 부모들과 그리고 인민들의 슬픔을… 하기에 나는 마음의 신들매를 더한층 바싹 조인다. 피에 주린 원쑤들의 《북진》 모략이 더는 지속되지 못하도록 부모 형제들의 소원,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해 이 초소를 더욱 철벽으로 지키리라는 것을…

전사의 량심



오 상 근

재벽부터 가랑눈이 내리더니 저녁에는 바람이 일기 시작했다.

북한강 기슭 독립 고지 중대부에 다달았을 때는 벌써 해는 서산 마루에 꼴깍 떨어지고 고자누룩한 어둠이 사위를 휘덮고 있었다.

나는 중대장과 마주 앉았다.

쩍 버그러진 그의 가슴에는 훈장 략장이 수북이 달려 있다.

—전투 영웅으로서의 그 기발한 공적 말입니다. 말하자면 교과서에 실릴만한 그 가치있는 사건에 대해서 말입니다—나는 빨간 수첩을 펼치며 의자를 끌어 당겼다.

—교과서에 실린다구요?—중대장은 당황하여 손을 내저으며—아닙니다. 이렇다 할 얘기꺼리가 없습니다—

나는 곧 서투른 나의 행동을 후회하였다. 얼핏 련대에서 부대장이 하던 말이 생각났다.

—그 사람은 좀처럼 자기 얘길 하지 않습니다. 누구도 그 영웅의 전투 업적을 속 시원히 들어 본적이 없습니다—

나는 황겁히 펼쳤든 수첩을 덮었다.

산마루의 찬바람은 윙윙 눈보라를 창문에 휘몰아 온다. 책상 우에 놓인 커다란 회중 시계 소리는 바람'결에 가끔 중단되였다가는 다시 규칙적인 소리를 낸다.

—군인의 생활이란 그저 이 시계 바늘처럼 움직일 따름입니다. 그러나 이 시계 바늘이 움직이는 그 시각마다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생의 기쁨이 맺쳐지지요. — 중대장은 무엇을 결심한듯 이렇게 말을 떼고는 —어서 담배를 태우시요. 내 한 전사에 대해서 얘기해 들이지요. 사실 지휘관의 공적이란 전사의 위훈을 떼여 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량미간에 깊이 패인 두 줄기 주름'살과 모자 채양밑에 이글거리는 눈초리는 그의 성격의 힘과 예리한 동찰력을 말하여 주고 있었다.

× ×

—지난 여름 내가 이 독립 고지 중대장으로 배치되여 오던날 밤, 나를 찾아 온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거무틱틱한 얼굴 왼쪽 볼은 호된 흠'집에 우그러 들어 보기 흉했으나 빛나는 그의 눈에는 유달리 정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얼핏 탄탄하고 요돌져 보였는데 보고하는 모양과 경례는 아주 형식적이였습니다.

(응, 이 병사가 나를 떠볼 작정인가?)

불쑥 이렇게 생각한 나는 그의 얼굴을 뚫어지게 쏘아 보며 입차게 물었습니다.

—그래 무슨 용무요?

—별다른 용문 없습니다. 그저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돌아 가겠습니다

—금시 정색해진 그 병사는 그대로 나가 버렸습니다.

나의 대답도 기다리지 않고 뛰쳐 나가는 이 《교만한 친구》의 뒤'모습을 나는 물끄럼히 바라 보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렬 검사때 나는 그를 곧 알아 보았습니다.

—동지의 이름이 뭐죠?

—상등병 김 연삼입니다—— 그의 대답은 명료하였습니다.

(김 연삼?) 나는 그때 그 낯익은 이름을 마음속에 외이면서 그대로 지나고 말았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에 짚이는 것이 있어 재차 그를 내 방에 불렀습니다. 눈앞에 다가선 그—그는 틀림없는 전쟁 초기 나의 련락병이였던 《복동이》 전사가 아니였겠습니까!

—이게 몇해만이요. 귀 밑에 복동이는 여전하군 그래…

—기억하십니까? 이 복동이를… 그는 늘상 귀밑 검은 김을 만지작거리며—이건 복받을 징조야—하며 동료들에게 자랑삼아 얘기하군 하였습니다. 나는 언젠가 그에게 롱삼아 그 김을 떼버리라고 했을 때—안됩니다. 중대장 동지! 나의 어머니가 이 김은 복동이니 아여 다치지 말라고 하던데요——그후부터 나는 그를 복동이라고 불렀댔지요.

나는 그때를 생각하며 그의 목덜미를 으스러지게 껴안고 그 복동이 김을 손끝에 부드럽게 비벼주었습니다.

—난 중대장 동질 곧 알아 보았드랬지요—

병사의 윤기도는 눈망울은 금시 흐려지더니 찹자그레한 것이 반짝이였습니다. 그 병사는 참말로 교과서에 수록하고도 남음이 있는 무척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중대장은 무척이라는 말에 힘을 주며 말을 계속했다.



×

1950년 7월, 전선은 남으로 뻗어 우리 중대가 수원 계선에 당도하였습니다. 당시 연삼은 금방 고중 학생모를 벗은

말하자면 신입 대원이였으나 남달리 총명하였습니다. 하루는 중요한 련락 임무를 띠고 대대부에 갔다 돌아오는 길이였습니다. 바우 비탈'길을 돌아 숲 속에 들어 서려 하였을 때 그는 소스라치듯 흠짓 뒤로 물러섰습니다. 숲 속에서는 세찬 회오리 바람에 몰린 가랑'잎처럼 적병 대 여섯놈이 머리를 맞대고 흐느작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놈들은 어찌나 정신이 흐리멍텅 해졌던지 우리 병사가 접근하였다는 것도 모르고 수근수근 쑥덕이고만 있었습니다. 병사는 재빨리 수류탄을 빼들었다가 잠시 생각하였습니다. (저놈들을 《허》로 잡을 수는 없겠는가?)

그는 재빠르게 수류탄을 추겨들고 놈들 속에 뛰여 들었습니다.

—나와 함께 죽겠는가? 그렇지 않으면 날 따르겠는가?

눈깔을 말뚱거리며 허겁지겁하던 적병들은 한 미군 장교놈을 따라 슬며시 무기를 놓고 손을 쳐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병사는 생포한 적을 앞세우고 지체 없이 중대부에 돌아왔습니다.

보고를 듣고 나는 그에게 물었지요.

—놈들 속에 뛰여 들때 무섭지 않던가?

—범을 잡을려면 산에 가야 하며 큰일을 위해선 죽음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그의 어조는 자못 침착하였습니다.

—그전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본적이 있소?

—네, 있습니다. 나의 아버진 탄부였는데 늘상 페병으로 쿵쿵거리다 해방되던 해에 돌아 갔습니다. 그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이 세상에 났다 이렇게 맥없이 죽어 가는가? 죽음을 뛰여 넘는 수는 없는가? 그후 민주 학원에서 공부하면서는 죽음에 대하여 생각해 본적이 없습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좋으니까요. 이렇게 말해서 좋을런지…—병사는 떠듬떠듬 망서리며 말을 이었습니다—솔직히 말해서 내가 군대에 나올 때 어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때 나는 공연히 그런다고 어머니를 나무랬으나 혹시 나도 사람이니 죽을 수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작 죽음을 걸고 원쑤와 맞서게 되니 마음이 폭 가라 앉습디다—

—그래 그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소?

—죽음을 이기기 위해선 적을 더 많이 잡아야 하겠다는 생각 뿐이였습니다—

나는 그의 말을 듣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무엇 보다도 귀중하고 큰 조국을 위해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법이죠—중대장은 서리'발 같은 담배 연기를 뿜으며 말을 계속하였다.

—나와 그 병사는 그후 함께 십 여차의 전투를 거듭하면서 평택시내에 들었습니다. 시내에서 벗어나 우리가 잠시 휴식을 가졌을 때였습니다. 나와 련락병은 다리턱 언덕밑 잔디 우에 나란히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요지음은 또 무슨 생각을 하나?

—원앙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원앙새라?

—언제나 서로 짝 지어 날아다니는 행복한 새말입니다. 우리 남북의 조선 사람들도 머지않아 저산 넘어로

맞손 잡고 자유로이 날아 다닐 수 있게 되였으니까요—

이때 산 저쪽에서 망질 같은 부르릉 소리가 가까워 오더니 미국 쌕쌔기 떼가 구름사이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는 전사들을 향하여 저놈들이 필경 이 다리를 노리고 있으니 속히 대피하라 했습니다. 적기는 배때기를 모로 치켜 급카브를 돌보면서 우리 쪽을 목표로 뚜루루 기총알을 내려 뿜기 시작했습니다.

—중대장 동지! 위험합니다—

연삼이는 나의 팔소매를 나꾸채며 깊숙이 웅덩이진 곳에 밀어넣고 그 우를 자기 몸으로 덮었습니다. 연삼이는 이때 몇군데 파편상을 당하였습니다. 나는 그가 자기의 상관인 나를 위험한 처지에서 품안에 품고 엎드렸던 그 갸륵한 마음에 자꾸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그는 곧 후송되였습니다.

전투 시기인 만큼 그가 뒤로 호송된후 다시는 만날 길 없었고 소식도 알 수 없었으나 어디에 가던지 잘 싸우리라 우리는 믿었습니다. 그러든 것이 정전후 뜻밖에도 내가 이 독립 고지로 오면서 서로 만나게 되였으니… 우리 군인 사이엔 이런 뜻하지 않는 리별과 상봉이 자주 있는 법입니다.

레의 부상에 대해 말한다면 나는 그 때의 상처가 그에게 그렇게도 심한 흠'집을 남겨 줄줄 몰랐습니다—

예까지 이야기하고난 중대장은 바람'결에 까물거리는 등잔'불 심지를 돋구었다.

—옛 전우와의 재상봉은 우리에게 한없이 즐거운 생활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주 전쟁때를 회상하군 하였습니다. 그는 내가 어떻게 해서 영웅이 되였는냐고 묻기도 했고 그 후의 자기의 무훈담을 신이 나서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부상이 완치된 후 또다시 전선에 달려 나와 락동강 계선까지 갔었고 그



후에는 정전때까지 351고지에서 중기 사수로 모범 전투원이 되였다는 것이였습니다. 얘기가 쌈에 미치기만 하면 네 활개를 치고 끼여 들었으나 평화 시기의 딱 째인 일과표 앞에서는 오금을 펴지 못했습니다. 어느듯 그에게는 《락후 분자》라는 딱지가 붙게 되였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있어서도 가슴 아픈 일이였습니다. 우리의 즐거움은 차차 괴로움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성격은 병실 구축 공사나 더우기 복장 정돈과 내무 생활과 같은 규정에는 애당초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전쟁 초기에 볼 수 있었던 심중성과 깊은 성격의 힘은 아랑곳 없었습니다.

—군인이 총 잘 쏘면 그만이지 뭐야! — 그에게 이런 똥고집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드랬지요.

하기 전투 정치 훈련도 끝나고 중대에서는 병사 수축 공사가 한창 버러지던 어느날 예고없는 총소리가 요란히 울리였습니다. 이 고지에서 예고 없는 총소리는 오발 사고가 아니면 비상 사건으로 간주하게 마련입니다. 나는 총소리 울린 작업장으로 황겁히 달려 갔습니다. 작업장에는 산'돼지 한마리가 버드러져 있었습니다. 오발 사고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알고 본즉 작업장 옆 골짜기에 산'돼지가 내려온 것을 남먼저 발견한 그는 어깨에서 질통을 벗어 던지고 달려가 보총으로 골통을 단방에 명중시켰던 것입니다.

—중대장 동지! 이걸루서 오늘 중대에선 큰 잔치를 베풀 수 있게 되였습니다—그는 자못 만족해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우리 중대에선 잔치 대신에 민청 회의가 진행되였습니다.

(총 한방 쐈기루 그게 무슨 큰 잘못인가) 회의장 한 구석에 쭈구리고 앉은 그는 내심 이렇게 생각하며 헛기침만 기쳤습니다.

그의 성미를 꿰뚫고 있는 나는 차근차근 그러나 엄격히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와 같은 사고는 전적으로 나의 령군상 결함에서 온 것임을 잊지 않고 있소—

솔직히 말해서 그때 나는 참말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실상 나의 마음 속에는 은연히 그 병사를 애무하는 야릇한 감정이 있었구 해서 겉으로는 책망하면서도 맘 속으로는 (그래도 좋은 친구야) 이렇게 대범히 치부하군 하였지요. 이러한 마음의 빈틈이 그 자신에게 어떤 특권적인 행세를 허용하는 요인으로 되지 않았다고 단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후 어떻게 개진되였나구요? 사실 병사들은 불명확한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단 상관의 태도가 명백해지면 그대로 모든 행동이 명확해지는 법입니다. 그는 아주 몰라 보게 달라져 갔습니다.

—연삼 동지는 아주 달라졌다니—전우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거, 참 담배 맛이 좋군……—그는 자기를 쳐 주는 것을 아주 낯간지럽게 느꼈습니다.

그러든 어느날 밤 그는 또 난데없는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나는 오랫만에 고향에 편지를 쓰느라고 밤 늦게까지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고함 소리가 련달아 나의 귀청을 울렸습니다.

—비겁분자! 죽여라 죽여!

다음에는 병실에서 전사들이 웅성웅성 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펜을 놓고 고함 소리 나는 병실로 뛰여 갔습니다. 한 병사가 모포를 걷어차고 벌떡 마다라스 우에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그는 연삼이였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시근땀이 주루루 흘렀습니다. 나는 곧 알아 채렸습니다. 병사들 속에 흔히 있는 《꿈소동》이였습니다.

나는 이 꿈이 심상치 않는 것이라고 느끼였는데 이튿날 밤 그 병사는 젤로 첫날 밤 나를 찾아 오듯이 넌즛이 내방을 녹크하고 들어 섰습니다.

—그래 요즘 어떻소? 나는 반가히 맞았습니다.

—중대장 동지! 꼭 얘기할 것이 있습니다—

—어서 말씀하시요—

—나는 비겁 분자입니다. 나는 상관을 속인 정직치 못한 병사입니다. 나는 모범 전투원의 자격이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그의 얼굴은 몹시 상기되여 있었습니다.

—나는 괴로운 한가지 비밀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그 어떤 소설의 정황을 그리듯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요즘 단독 보초에 설 때마다 느닷없이 가냘픈 감정에 빠지군 합니다. 전번 보초 근무때입니다. 먼 하늘'가에 은하가 비끼여 나의 생각은 어느듯 고향 마을로 달렸습니다. 마을에선 가마니짜기에 분주하겠지. 협동 조합에 들었다는 어머니는 일을 잘하고 계실까? 이때 갑자기 건너편 적 진지에서 시커먼 그림자가 얼린거리더니 급기야 북한강 어름'장을 타고 개미새끼 몰리듯 이쪽으로 달려 들지 않겠어요.

(나를 생포할려는구나!) 한발'자욱뒤로 움치며 신호줄을 당기였으나 어찌된 셈인지 줄은 끊어져 통하지 않더군요.

(인젠 틀렸구나!)

나는 따발총을 틀어 쥐고 앞으로 달렸습니다.

고요한 산마루를 울리는 총소리에 깜빡 놀라 깨니 꿈이였습니다—

—그래 그것이 어쨌단 말이요? 나는 물었습니다. 그는 대답합니다.

—나는 그때 보초 근무에서 돌아와 《중대장 동지! 보초 근무에서 이상이 없었습니다》라고 허위 보고했지요. 이 나의 거짓말을 더 마음에 품고 있을 수 없습니다—

중대장은 그때 있었던 사실을 대충 이렇게 전하고 다음과 같이 말을 이었다——그 병사는 이 《비밀》을 계속 숨겨 둘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때 보초에서 졸았다는 것은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것이며 그가 털어 놓지 않으면 영원히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사실 이 병사처럼 깨끗한 량심은 모든 정직한 사람의 훌륭한 행동의 기초이지요——

중대장은 펼쳤던 노트를 나의 앞에 밀어 놓았다. 나는 거기서 《상등병 김 연삼의 량심》이란 표제 밑에 이상의 내용이 촘촘히 적힌 글발을 읽을 수 있었다.

밖에서는 취침 시간을 알리는 나

팔 소리가 진묘한 음향을 내여 산마루에 퍼져갔다. 초소의 밤은 깊어갔다.

—연삼 동질 만날 수 있습니까?

—재대되였습니다. 엊그제 편지가 왔는데 지금 고향 마을에서 협동 조합원으로 일하고 있다 합디다. 아마 그는 거기서도 어김없이 모범 조합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중대장은 힘있게 말을 잇는 것이였다. 나는 이튿날 고지를 나려 오면서 그의 고향 협동 조합을 찾아 가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성과가 크면 클 수록

공화국 영웅 량 태현



친애하는 평양 자동차 공장 로동자 동무들!

바로 몇해전만해도 당신들의 품 속에서 선반공으로 일하던 량 태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슬기로운 조국의 매의 이름으로 그 목소리를 전하게 됐으니 이 영광을 내 어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영광! 이것은 조국의 따뜻한 손'길의 덕이였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지난 공중전에서 매양 원쑤에게 죽음의 불벼락을 퍼부었습니다.

오늘도 조국의 푸른 하늘을 날으며 당신들이 이룩하는 건설 모습과 창조적 성과를 지키고 있습니다. 나는 언제나 당신들의 고무의 손'길을 더욱 더 몸가까이 느낍니다.

나는 지금 생각합니다.

당신들의 로력적 성과가 크면 클수록 우리가 조국 하늘을 지키는 보람은 더욱 크며 우리가 조국 하늘을 철벽으로 지키면 지킬 수록 당신들의 로력적 성과는 더욱 굳건하여 조국의 힘으로 된다는 것을!

친애하는 독자 동무들에게!

요즘 《청년 생활》 편집부에는 1호에서 제기한 지상 토론 《그가 가야 할 길은?》에 대한 독자 동무들의 좋은 의견과 토론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토론들은 이제 3호부터 게재될 것입니다. 편집부는 이 지상 토론에 앞으로 더 많은 동무들이 참가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편집부로 부터**



=강선 제강소에서=

《용해 시간을 5시간으로 단축하였다》…

이 소문은 실로 번개와도 같이 전 공장안에 퍼졌으며 로동자들을 격동시켰다. 공장 속보판 앞에는 많은 용해공들이 모였다.

—3호로 김 경준 브리가다로구나—

—응 그야말로 기적인데! 여보게 난 일제때부터 이 공장에서 일하였지만 그땐 용해 시간이 평균 20~40시간씩 걸렸다네—

—아, 그건 고사하고 1954년에만 하여도 평균 11시간반 이상 걸리지 않았나—

—그래서 영웅적 로동 계급이라지 않소. 우리가 하재서 못한 일이 어데 있소—

사실이지 이들이 하자꾸나해서 못한 일은 없다. 새 해에는 작년보다도 더 많은 생산 과제가 차례졌다. 이는 물론 쉬운 과제가 아니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살림을 꾸리는 야장》이란 자각과 영예감으로 이들은 온갖 로력과 창발성을 다해 싸웠다. 우선 로의 사고를 근절하여 그 가동률을 높이는 문제가 중요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호르다링그의 랭각 장

치를 정상적으로 보살펴야 했고 제련 공정에서 규소철을 더 많이 투입하여야 했다. 그래서 새해에 들어 서면서부터 이를 실시하여 그날 계획을 그날로 꼭꼭 완수하는 투쟁을 실시했다. 이리하여 이들은 용해 시간을 5시간으로까지 단축하게 된 것이다.

× ×

한편 3호로 앞에선 이 첫 기록의 돌파자들인 김 경준 브리가다와 진 응원 브리가다원들이 교대를 하고 있었다. 그 다음 교대 순번인 양 지석 브리가다장도 김 경준 브리가다를 축하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왔다. 인계 인수가 끝난 다음 진 응원 브리가다장이 말했다.

—굉장한걸! 그렇다고 김 동무! 뽐낼 필요는 없네, 기는 놈 우엔 나는 놈이 있다구—

—흥 아모렴 거북이 비행기를 따르겠나?— 김 경준 동무도 지지않고 롱을 받는다.

—하하…하로 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른다고 이 친구들이 양 지석 청년 브리가다를 몰라 보나—옆에서 듣고 있던 양 지석 동무도 말 참견에 뛰여든다.

이윽고 진 응원 브리가다원들이 작업에 착수했다. 남보다 뒤지지 않으려는 그들의 마음은 마냥 총을 든 화선의 병사처럼 긴장하였고 그들의 동작은 육박의 영웅들처럼 날쌨다. 누구나 없이 자신 만만한 태도들이다.

× ×

양 지석 동무는 며칠째 잠들지 못했다. 그는 천정 한끝을 물끄럼히 쳐다 보면서 궁리를 거듭하고 있었다… 어떻게 하면 불꽃 튀는 이 새해 증산 경쟁에서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과 지난번 친히 이 공장에 찾아 오신 김 일성 원수의 교시를 실천할 수 있을까?…

창 넘어로 공장의 기계 소리들은 더욱 다정히 가슴에 안겨 오는데 벌써 남포행 막차 소리가 들려 온다. 우선 작업 교대에서 인계 인수 사업을 30분씩 더 단축하자! 그리고 또 작업 조직을 더 합리적으로 함으로써 로 보수와 장입을 동시에 하는 작업에서 능률을 높이자! 아침마다 교대 직전엔 12월 전원 회의 정신을 전체 브리가다원들에게 더 강조하자! 우리는 기어코 앞설 것이다. 교대 시간이여! 어서 오라!

× ×

사실 양 지석 청년 브리가다에서는 며칠 후에 용해 시간을 더욱 앞당겨 4시간 45분으로 단축하였다. 그것은 실로 력사적인 신 기록이였다. 경쟁자들은 로앞에서 감격적으로 포옹하였다. 1, 2, 4호로들에서도 달려 오고 제강 직장 민청 위원장 로 진삼 동무도 달려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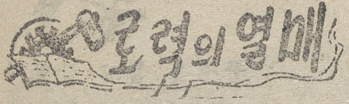
—지석 동무! 아직두 뽐내긴 이르단 말이야— 김 경준 동무의 말이다.

—하하… 이사람, 앞으로도 우린 계속 이길 것이네—

—그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이겨야 합니다. 그러자면 증산과 절약 예비를 옳게 찾아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 합니다. 모두들 3호로의 모범을 따라 5천톤의 강괴를 더 많이 생산해 냅시다—

민청 위원장 로 진삼 동무의 말은 젊은 로동자들을 더욱 격동시킨다. 이들의 가슴은 오로지 한가닥 증산으로 내 나라를 보다 행복하게 꾸리겠다는 념원으로 들끓는 것이였다.

본사 기자 한 희만



창의 고안으로!

천남 광산 선광 직장에서 일하는 김 석완동무는 오래전부터 선광장에서 쓰는 분급기의 개조에 착심하였다. 즉 종래의 분급기로서는 광액을 익류함에서 익류 농도를 잘 조절하지 못했다. 때문에 광물질의 품위와 실수률에 많은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부선 작업에서도 많은 시간이 걸리게 하였다.

김 석완 동무는 이러한 결함을 고치기 위하여 연구를 거듭하였다. 결과 그는 지난 1월 드디어 분급기의 개조에 성공하였다. 즉 분급기 익류관의 끝부분에 두개의 데끼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쎈드 침강률을 적게 하였으며 또한 분급기의 익류홈을 널로 몇 군데 막아 놓음으로써 익류 농도가 적당히 조절되게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부선 작업에서도 작업능률을 125%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천남 광산 김 인 현



원시 사회

① 지구 우에 제일 먼저 생긴 사회는 원시 사회이다. 이 원시 사회는 몇 10만년 동안이나 계속되였다. 그때 사람들은 언제나 30~50명씩 무리를 지어 다니였는데 그들은 최초에 나무 우에다 둥지를 틀고 살았다.



② 자기들이 살고 있는 부근에 먹을 것이 떨어져 가면 정처 없이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 다녔다. 그들은 주로 강을 따라 다니였다.

그것은 물이 있는 곳이라야 먹을 것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때의 인류는

옷 입는 것도 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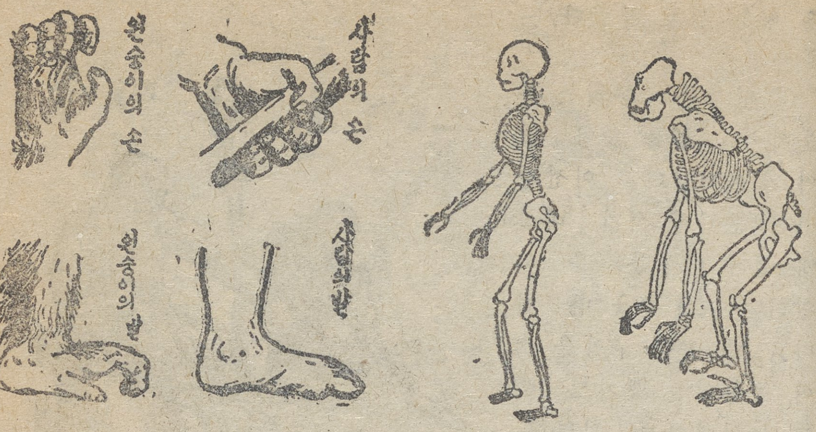


③ 인류는 로동하는 가운데서 도구를 끊임 없이 개조하였다. 이전에 만든 순전한 석기 대신에 돌과 나무를 가지고 편리한 도구들을 만들었다. 즉 돌에 구멍을 뚫어 몽둥이를 꽂기도 하고 동여매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돌 도끼나 창을 만들었다. 이때로 부터 인류는 벌써 짐승의 가죽으로 자기 몸을 가리워 추위를 막을 줄 알게 되였다.

④ 그들은 뼈로써 도구를 만들기도 했다. 즉 큰 뼈로서는 두드리는 도구를, 작은 뼈로서는 낚시나 뼈 바늘을 만들었다. 소뿔과 코끼리의 이'발을 가지고도 도구를 만드는데 썼다. 그리고 연하고 질긴 나무 가지를 리용하여서는 광주리도 만들었으며 나종엔 삼 껍질로 노끈를 꽈서 고기 그물을 뜨기까지 하였다.



⑤ 인류는 무리를 지어 여기 저기 이주하여 살던 마지막 시기에 활을 발명하였다. 화살은 창보다 더 멀리 갈 뿐만 아니라 아주 정확하였으니 인류의 힘은 이것으로 하여 더욱 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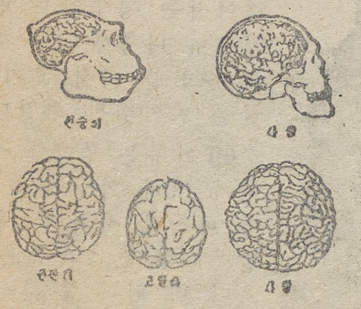


사람 (좌)과 현재 남양에서 살고 있는 류인원의 일종인 고릴라 (우)의 골격의 비교





목과 입안의 구조가 단순한 류인원들은 단순한 소리 밖에 내지 못하지만 사람들의 목과 입안의 구조는 복잡하게 되어 있어서 마디 있는 소리 즉 말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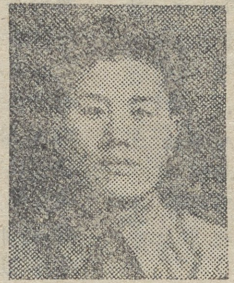




사람의 뇌수는 원숭이들의 뇌수에 비하여 훨씬 크고 또 주름이 많이 잡혀 있으며 발달되고 있다.

크로마니욘인의 풍모와 그의 두개골

그가 기수로 되기 까지에는



우리들 가운데는 기수나 기사가 되려면 전문 학교나 대학을 꼭 나와야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동무들이 있다. 이것은 이미 낡은 생각이다. 락원 기계 공장 공무 동력부에 있는 기계 기수 김 래즙 동무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전문 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노력만 하면 능히 기수로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기술 로동과 학습을 결부시킨다면 목적하는 과학과 기술을 더 빨리, 더 쉽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나의 경험입니다—

김 래즙 동무는 독학으로써 기수의 영예를 쟁취하였다.

결심은 성공의 시초

김 래즙 동무가 이 공장 선반공으로 배치된 것은 1954년 9월이였다. 그는 처음에 기능공이 되려고 희망하였지만 기수가 되겠다고는 꿈도 꾸지 못하였었다. 그후 소학교를 겨우 나오고 독학으로 기사까지 된 리 동일 기사와 사귀게 된 후부터 자기도 혼자 공부해서 기수가 되겠다고 마음 먹기 시작하였다.

어느 날 그는 리 동일 기사를 찾아 자기의 결심을 말했다. 그랬드니 기사는 저욱히 반가워하면서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였다.

—래즙 동무! 잘 생각했소. 우리는 꼭 기술을 배워야 하오. 내가 공부할 때는 일제때인 것만큼 곤난이 많았소. 공장내 기술자들은 왼통 일본놈들이여서 물어야 가르쳐도 주지 않았거니와 하루 열 서너 시간 일하고 나면 공부할 시간도 없었소. 그러나 지금이야 사정이 다르지 않소. 제호마다 대학과 전문을 나온 기사, 기수들이 수두룩 하겠다…문제는 동무의 결심과 노력에 달렸소—

동일 기사의 지지와 고무를 받은 그는 기수가 되겠다는 자기의 결심을 더욱 굳게 하였다.

학습 계획이 필요했다

학습 계획을 세우는 데는 우선 생산 활동과 결부시키는 것이 필요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 절삭 리론을 공부하기로 했다. 물론 그때 그는 초보적인 절삭 리론도 몰랐었다. 그러나 그는 직접 생산에 참가하고 있는 것만큼 선반기의 구조, 사명, 능력 등 기술적이며 실질적인 것들을 알고 있었다. 이것은 리론을 학습함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생산에서도 그를 크게 도와 주었다. 그의 꾸준한 노력은 헛되지 않았다. 1955년 5월에 있은 기수 자격 검정 시험에서 절삭 리론 한 과목에 합격하였

다. 그러나 기수 자격 시험을 완전히 끝내자면 절삭 리론 외에도 여러 가지 힘든 과목들을 공부해야만 했다. 기초 지식이 약한 그에게는 큰 부담이였다. 이 방대한 학습을 제대로 잘 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밀한 학습 계획이 있어야 했다. 그래서 그는 먼저 한해분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다시 달과 날, 시간으로 나누었다. 그는 로동 시간을 제외한 과외 시간을 타서 하루 2시간 30분씩 학습하기로 정하였다.

그날 학습은 꼭 그날로

이제는 계획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데 사실 생산을 보장하면서 계획적으로 학습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였다. 이것을 실행하자면 세밀한 시간 배정과 완강한 노력이 필요했다.

더우기 삼십리나 떨어진 남신의주에서 통근하는 그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퇴근하면 보통 8시가 넘었다. 저녁 식사가 끝나면 벌써 피곤에 전신이 나른해지고 눈이 내려 감겼다. 게다가 동생들이 분주히 굴어서 초저녁엔 도저히 공부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아이들이 잠든 새벽 시간을 타서 먼저 로어를 30분 공부하고 남어지 2시간은 다른 과목 학습에로 돌리였다.

그런데 어쩌다가 회의나 있어서 밤에 늦게 오면 제시간에 깨지 못하는 때가 있었다.

이렇게 되면 학습은 밀리기 마련이고 밀리기 시작하면 학습열도 식어 갔다. 이런 때면 그는 결심이 약한 자기를 비판하군 했다.

그러면서 그는 잠을 덜 자더라도 전날에 밀린 학습을 다하고 그날 학습까지 그날로 꼭 실행하는 습관을 길렀다.

배운 지식을 생산에

이렇게 꾸준히 공부하는 그에게는 새로운 곤난이 생겼다. 우선 그가 계획대로 공부하는 데 애로로 된 것은 교재였다.

전문 학교용이나 대학용 교재를 읽어야 할텐 데 힘들어서 리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공장 내에 있는 북중기계 전문 학교 졸업생들의 노트를 빌려다 보기 시작했다.

또 그에게는 이런 남 모르는 안타까움도 있었다. 어느 과목을 공부하다 그 문제를 알아야만 다음 문제로 넘어 가겠는데 도저히 알 도리가 없었다. 애가 타다 못해 신경질까지 났고 나종엔 실망에 잠기는 일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실망을 일삼을 수 없었다.

그는 자기를 자책하면서 우선 다음 문제를 공부했다

이튿날 그는 일하다 쉬는 짬을 타가지고 리 동일 기자를 찾아 가서 그 문제를 해명 받곤 했다. 그리고 쉬는 시간이면 단어 수첩을 펼쳐놓고 기계 부속품들의 이름을 외웠다. 또한 배운 지식을 실지 작업 행정에서 실험하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했다.

이렇게 해서 얻은 지식은 잊혀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작업시에는 책에서 배운 기술적인 것들을 실지 생산에 적용하여 보곤 했다.

이와 같은 그의 노력은 그로 하여금 1956년 11월에 기수의 자격을 얻게 하였다.

그러나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있다. 그는 지금에는 공장내 설비들을 수리 관리하는 공무 동력부에서 일하면서 3년내로 기사의 자격을 가질 결심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며 더욱 꾸준히 공부하고 있다.

본사 기자 조 경직

새 소식

기계로 만든 새

세상에서 가장 큰 새보다 몇 갑절 더 큰 새가 하늘에 나타났다.

이 새를 우연히 보게 된 사람들 모두가 그 희한하고 괴상한 날개에 시선·돌리였다…

어김없이 비행기의 날개가 활개치고 있었다.

처음으로 이러한 비행기를 만들어 시험한 사람은 쏘련 항공 모형을 만드는 사람인 쓸로도브이다.

얼마전에 모쓰크바 항공 연구소에서는 기사 볼되뇨브의 지도하에 활개치는 날개들이 달린 비행기의 도면이 만들어졌다.

이 비행기는 같은 마력을 가진 프로페라가 달린 비행기 보다 더 높이 날수 있으며 또 훨씬 더 빠르다.

또한 이 비행기는 연료도 더 적게 든다.



신형 초자(유리) 방적기

레닌그라드 《칼 맑스》 공장에서는 쏘련에서 처음으로 되는 초자(유리) 방적기의 조립을 끝마쳤다.

이 방적기를 리용하여 직경 18미리메터의 작은 유리알에 1천 4백도—1천 5백도의 열을 주면 거기에서 약 160키로메터의 탄탄한 실을 뽑을 수 있다.

초자(유리)에서 뽑아낸 실로는 모직물과 비슷한 천을 생산한다.

이 천은 불에 타자 않으며 좀체로 물에 젖지 않는다.

이 천은 큰 변압기와 발전기 및 전기 발동기들의 절연용으로 리용되며 특별 작업복들을 만드는데 사용된다.

초자(유리) 방적기는 1천 4백개의 부분품들로 된 15개의 장치 및 기계로 되어 있다.

결의는 실천 되고 있다

청년들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열렬한 지지와 감격으로 맞이하고 있다. 그들은 언제나 우리 당이 부르는 길에서 조국의 광활한 미래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벽두부터 조국의 방방 곡곡에서 청년들은 당과 조국 앞에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청년들은 영예롭고도 엄숙한 자기들의 맹세를 어기지 않고 있다.

공장에서, 탄광에서, 농촌에서, 어촌에서 청년들은 창조적 로력 투쟁으로 제 1차 5개년 계획의 첫해 계획을 승리적으로 수행하면서 있다.

보다 높은 증산을 위하여!

나는 잡지 《청년 생활》 지상을 통하여 우리 민청 초급 단체 동무들의 새해 생산 성과를 독자 여러분께 알릴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에 들어 서면서 우리 초급 단체 민청원들은 조선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최대한의 증산을 위하여 저마다 120% 이상의 생산을 낼 것을 결의했습니다.

지금 이 결의는 실천되고 있습니다. 새해 첫 작업에서 조립공 박 용익 동무는 완해변 조립을 300%로, 리 대식, 조 홍수 동무들은 앙구루 곡구 조립을 각각 200%로, 강 병칠동무는 지변 조립을 150%로 그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새해 작업에서의 성과는 우리들로 하여금 1957년 생산 과제를 능히 실천할 수 있다는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교통성 라흥 철도 공장
청년 직장 민청 초급단체
최 룡 수

창조적 로력으로!

《나는 로동당 중앙 위원회 12월 전원 회의 결정을 받들고 올해에는 오직 증산과 절약을 목표로 싸우렵니다. 그러기 위해 나는 200마력 열구 기관 가공 기구를 창안하여 로력 공수를 절약하며 생산 과제를 150% 실행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독자 여러분! 이것은 동맹앞에 다진 나의 새해의 결의였습니다. 나는 꾸준히 노력하였습니다. 드디여 나는 1월 8일 30마력 열구 기관 상하메달 가공 방법을 개조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결과 지금 나는 200%의 생산 능률을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결의 실천에서 아주 적은 초보적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의 결의 실천을 위해 더욱 굳세게 그리고 꾸준하게 계속 노력하렵니다.

북중 기계 공장
리 만 복

작업 방법을 개선하여!

존경하는 《청년 생활》 독자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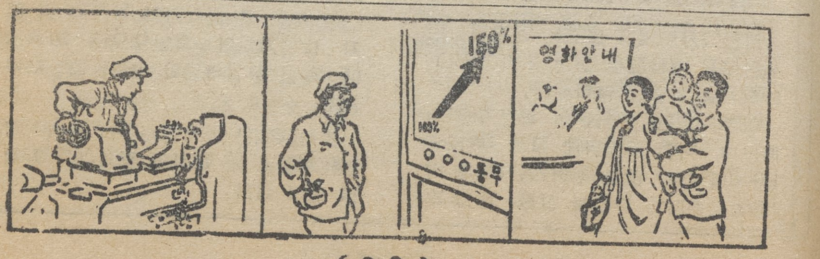
1차 5개년 계획 첫 해의 작업에서 카바이트 직장 민청로 작업반 청년들 앞에 나선 기본 과업은 카바이트를 증산하는데 있습니다.

우리들이 시간당 카바이트를 만들어 낼 국가 지표는 이미 2톤 300kg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작업에서 우리에게는 민청로 인계 인수 사업과 원료 투입 작업에서 적지 않은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극복 못한다면 금년도 생산 과제를 넘쳐 실행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민청로 작업반 청년들은 새 해에 들어 서면서 한 사람 같이 마음을 합치고 증산을 결의했습니다.

우리는 집체적 지혜를 발휘하여 선진적 직렵식 투입 방법을 적용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우리는 표준 조작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작업한 결과 시간당 계획보다 1,500kg의 카바이트를 더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생산을 내기 위하여 계속 투쟁하고 있습니다.

본궁 화학 공장 카바이트
직장 민청로 브리가다
김 무 열





아이젠하워주의란 무엇인가?

지난 1월 5일 미국 대통령 아이젠하워는 중근동의 여러 나라들에 대한 미국의 정책에 관한 특별 메쎄지를 국회에 보냈다.

아이젠하워는 이 메쎄지에서 첫째로 중근동의 현 정세를 《위급한 것》으로 평가하고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중근동 지역에 언제나 미군을 동원할 수 있는 권한과 둘째로 중근동 여러 나라에 경제 및 군사적 《원조》를 줄 권한을 자기에게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

이것이 악명 높은 《아이젠하워주의》이다.

《아이젠하워주의》가 노리고 있는 목적은 아주 흉악하다. 그것은 첫째로 애급에 대한 침략 전쟁의 패배로 영, 불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주의가 결정적으로 파탄된 중근동 지역에 영, 불 대신 미국이 또 다시 식민주의를 펴치려는 데 있으며 둘째로 민족적 독립을 위하여 일어선 중근동

그림 송 용남



지역 인민들을 반대하며 세째로 미국 정부의 비위에 거슬리는 정부나 정권을 없애고 그 대신 자기들에게 굴종하는 괴뢰 정부들을 들어 앉히려는 데 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 평화 애호 인민들은 물론 미국의 시사 평론가들까지도 《아이젠하워주의》를 《트루맨주의》의 재판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아이젠하워주의》는 이미 파탄된 《랭전》을 소생시키려 하며 《쏘련의 침략》으로부터 중근동 제국을 《보호》한다는 구실 밑에 이 지역을 몽땅 삼키려는 새로운 형태의 식민주의의 표본이다.



※ 《트루맨주의》

제2차 세계 대전후 《트루맨 주의》는 소위 《쏘련의 침략》을 반대한다는 구실밑에 《랭전》을 개시하였고 희랍과 토이기를 예속시키는 도구로 되었었다.

※ 중 근 동

근동이란 개념 속에는 일반적으로 토이기, 씨리아, 레바논, 이라크, 요르단, 이스라엘, 애급, 동부 수단, 사우디 아라비아, 예멘 등이 들어가며 이 밖에 아랍 반도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와 보호령들인 아덴, 하드라마우트, 오만, 카타르 쿠웨이트 등이 포함된다.

중동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이란, 아프가니스탄 등이 포함되는바 어떤 경우에는 이상의 모든 나라들을 통 털어서 중동이라고 부르는 때도 있다. 따라서 중동, 근동이란 말에는 지리상 명확한 구분은 없으며 나라에 따라서 또는 때에 따라서 리해하는 개념이 서로 조금씩 다르다.



글•남 궁만

그림•정 현웅

때는 6월이이였다.

압록강에서 돌아 온 을지 장군은 새로운 령을 내렸다. 그것은 평양성 이북 백성들은 한알의 곡식도 남기지 말고 산속 깊이 감춘 다음 모다 피난하라는 분부였다.

백성들은 낟알은 물론 불을 피울만한 나무끄쟁이 한가지도 남기지 않고 원쑤와 싸울 차비를 갖추면서 산 속에 숨어 버렸다.

바로 이런 때였다. 적군은 드디여 압록강을 건너 룡만성(지금의 의주성)에 들었다. 적군은 룡만성을 손 쉽게 빼앗었다.

원쑤의 침략을 막는 데는 룡만성이 다시 없는 요충이였다. 룡만성은 압록강을 가로 막고 험악한 산악으로 둘러 싸인 자연의 요충이였다. 적군을 막자면 여기에서 막아야 하는 것이였다.

그런데 우리 군사는 변변히 싸우지도 못하고 퇴각하고 말았다. 그것은 을지 장군의 명령이였던 것이다. 장군의 명령에는 군사들도 적지 않게 놀랐지만 그 보다 더 놀랜 것은 조정의 귀족들이였다.

룡만성을 손에 넣은 적군은 어느 사이에 살수 (지금의 청천강)를 건너 평양성에서 불과 60리 떨어진 곳에까지 이르렀다.

사태가 이렇게 되자 조정은 물 끓듯 하였다. 《호언 장담을 하던 을지 장군이 어찌하여 원쑤들과 변변히 싸움 한번 겨뤄보지도 못하고 평양성을 포위 당하게 하였는가?》, 《인제 래호아의 수군이 패수로 기여든다면 평양성은 그대로 함락되고 말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이것이 정녕코 을지 장군이 원쑤에게 매수 당한 것이 틀림없다.》 이리하여 마침내는

—을지 장군이 적진에 갔다가 죽게 되니까 매수된 것이 틀림 없사오니 그를 처단하옵소서!

하고 왕에게 상소까지 하는 귀족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왕은—일을 서두르지 말라! 고 타일렀다.

그러나 래호아의 수군은 대거하여 패수로 기여 들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을지 장군을 처단하라는 소리는 더욱 높아졌다.

이 소리는 적장들을 몹시 기쁘게 하였다.

압록강에서 을지 장군을 놓친 죄로 우 문술은 좌익위 대장군의 실권을 그 밑에 있는 우익위 대장군 우 중문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우 중문은 압록강을 건너 쳐 들어 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한번 을지 장군을 대하자 그 기세에 눌리웠고 또한 고구려의 실정과 자기 군사의 형편을 바로 살피게 된 우 문술은 내륙 깊이 쳐 들어 가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자 수 양제는 우 문술을 내려 밀고 우 중문으로 하여 쳐 들어 가게 하였던 것이다.

우 중문은 과연 무릎을 치며 호걸 웃음을 웃었다. 인제 수군만 오면 공동 작전으로 나가





평양성은 일거에 함락시키는 것이다.

—이래도 고구려 놈들이 무섭단 말인가? 하고 우 중문은 우 문술을 비웃었다.

그러나 우 문술은

—두고 봐야 알 일이요!

하고 퉁겨버렸다.

한편 을지 장군은 오직 을밀대 대진영 안에서 군사들을 훈련만 시키고 있었다.

그러든중 어느 날이였다. 장군은 다시 적진에 사자를 보내였다.

적장 우 중문은 이 사자로부터 받은 서찰을 떼여 보았다. 서찰에는

«슬기로운 장략은 천문을 통달하고 정묘한 추리는 지리에 통달하도다.

전승한 공이 이미 높았으니 족한 줄 알거던 그만 그치기를 바라노라»

라고 씌여 있었다.

을지 장군 항복을 하는 것으로 해석한 우 중문은 몹시 기뻐했다. 그래 우 중문은 이내 필묵을 내여 을지 장군이 직접 나와 항복을 하면 그대로 돌아 가겠다는 뜻의 글을 써서 고구려의 사자를 돌려 보냈다.

얼마 후 다시 을지 장군에게서 사자가 왔다. 사자가 가지고 온 글에는

«만약 장군이 물러 간다면 나는 우리 국왕과 함께 귀국의 진중에 가서 귀국의 황제와 만날 기회를 만들기를 힘쓰겠노라!»

하고 씌여 있었다. 이것을 본 우 중문은 —오만 무례한 놈! 물러 가야만 만날 기회를 만들겠다고?

하며 이를 갈았다. 그러나 고구려의 사자가 다시 내여 바치는 조그마한 상자를 열어 보자 그만 얼굴이 파랗게 질리고 말았다. 상자에는 한 폭의 기치가 들어 있었다. 그것은 틀림 없이 수군 제독 래호아의 좌익위 대장군 기였다.

수군 대장군 기가 을지 장군 손을 통하여 전달되였다는 것은 적의 수군이 전멸당하였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 틀림없었다. 우 중문이 하늘 처럼 믿고 고대하던 수군이 이미 고구려군에게 전멸 당하였다면 평양성을 함락시키는 것은 이미 트러진 것이다. 과연 래호아의 수군은 우리 군사에 의하여 전멸당하였다. 본시 을지 장군이 적진에 갔던 것은 적진의 실정을 염탐한 다음 적을 유도할려고 한 것이다. 장군의 예측은 틀리지 않았다. 압록강을 건넜을 때 적진에서는 굶어 죽고 병들어 죽는 자가 45만 대군중에서 15만이 넘었다는 사실을 염탐하였다.

적진에는 쌀 한톨 저장한 것이 없었다. 그 우에다가 을지 장군은 적장 우 문술과 우 중문으로 하여 싸움을 부쳐 놓아 적진을 더욱 혼란에 빠뜨려 놓고는 청야 전술로 들어 갔다.

적군을 유도하여 내륙 깊이 끌어 들이고는 곡식 한톨 풀한대 원쑤들에게 주지 않고 기아와 피로에 적군을 빠뜨린 다음 우리 군사는 조금도 손실없이 원쑤들에게 무리 죽음을 내리자는 것이 을지 장군의 유명한 청야 전술이였다.

적의 수군을 때려 부신 을지 장군은 드디여 진격 명령을 내렸다.

을지 장군의 예측은 조금도 틀리지 않았다. 래호아의 수군이 패한 것을 안 적군은 허둥지둥 도망치기 시작하였다.

이것을 발견한 우리 군사들은 함성도 높이 쳐들었다. 원쑤들은 혼란에 빠져 저이끼리 서로 찌르고 아우성치며 죽어 갔다.

도처에 매복했던 군사들은 불시에 나타나 달려 들었다. 산으로 들어 갔던 백성들도 무리를 지어 도망치는 원쑤의 앞길을 막았다.

어느듯 살수에 이르렀다. 적군은 전군을 한데 모아 강을 건넜다. 그러나 어이 알았으랴 마상에 높이 오른 을지 장군의 삼척 장검이 한번 하늘 높이 은빛 무지개를 그으며 번쩍이자 도처에 매복했던 우리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원쑤들을 살수 깊은 물에 쳐넣어 무리 장사를 지냈다. 이리하여 수 나라 45만의 침략군 중 겨우 살아서 다시 압록강을 건는 것은 불과 수천명에 지나지 않았다. 이것이 우리 력사에 기리 빛나는 을지 문덕 장군의 살수 대첩이였다.

1956. 12.

1930년대 항일 유격 투쟁 실기



글·김 일선　　　그림·남 현주

유격 대원들은 200 여 명의 적을 살상 포로하였고 많은 군수 물자를 로획하였다. 놈들은 자기들의 작전에 큰 타격을 받았다.

행군이 시작되면서 부터 나리기 시작한 비는 멎을 줄 모르고 계속 심하게 퍼부었다.

—적들이 추격하기 전에 새발을 지나야 한다—

대장 동무는 이렇게 뒤로 전달하면서 강행군을 하였다. 틀림 없이 돈화와 연길 방면에서 적의 응원 부대들이 달려 올 것이기 때문이다. 유격 부대가 밀영지까지 갈려면 넓은 새발을 지나 강을 건너야만 했다.

다음날 그 다음날도 비는 계속 나렸다.

리 동무는 벌써 이틀 동안을 굶고 나니 피곤을 느끼였다. 그러나 비에 젖은 로획한 물자까지 지고 행군하는 대원들은 누구 하나 괴롭다 말하지 않았고 묵묵히 앞을 따라 전진하는 것이였다. 이를 볼 때마다 그는 새로운 용기를 얻었다.

이틀만인 아침에야 산을 내려 새발을 지나기 시작하였다.

비는 계속 나리였다.

적들은 비가 온다고 해서 경비를 중지하지는 않았다. 5리나 되는 새발을 지나 강을 건느려는 때였다. 유격대는 적에게 발견되여 불의에 사격을 받았다.

계속 나린 비로 강에는 큰물이 났다. 적의 경비 상태로 보아 이미 결정한 도강 장소 이외에 딴 곳으로는 건너갈 수 없었다. 대원들은 로획한 광목의 한쪽 끝을 끌고 헤염쳐 건너 강기슭에 매여 놓고는 그것을 잡고 건느기 시작하였다.

적들은 중기를 닥치는 대로 휘둘렀다. 요행 안개와 보슬비로 사위는 자욱했다. 적들의 묘준은 터무니 없었으나 그래도 적탄은 도강 지점 앞뒤에 우박처럼 쏟아졌다.

유격 대원들은 가까스로 전원 무사히 강을 건넜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새로운 난관이 또 닥쳐 왔다. 강을 건너 약 2키로 지점에서였다.

하발령의 적 응원 부대가 바로 산기슭 우측을 휘돌고 있었다. 비는 멎었다.

적을 눈 앞에 둔 용사들은 저마다 때려 부실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대장 동무는 적을 통과시키자고 제의하였다. 그것은 대원들이 3일간이나 굶고 행군하여 지칠대로 지쳤고 비를 맞아 총신은 녹이 쓸었을 뿐만 아니라 적을 공격할 지대도 불리하였기 때문이였다.

이리하여 유격 대원들은 숲속에서 적이 다 통과하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적의 주력 부대가 통과한 뒤 한참만에 또 다른 부대가 그들의 앞을 막고 지나갔다. 그것은 적병 약간의 감시 밑에 강제로 동원된 인민들이 적의 탄약과 식량을 운반하는 50여 명의 짐'군들이였다.

—저 부대만은 그냥 통과시킬 수 없소. 옹 동무! 동무는 리 동무를 데리고 뒤에서 총을 메고 가는 저 두 놈을 잡고 인민들을 구하시요—

이는 대장 동무의 명령이였다. 리 동무는 대답 대신에 지고 있던 광목과 배낭을 벗어 놓고는 옹 동무를 따라 갔다.

큰 길 옆 숲속까지 포복하여 갔을 때 짐'군들의 선두가 그들의 앞을 지나 가기 시작하였



다. 벌써 앞서 간 주력 부대는 산구비를 돌아 보이지 않았다.

어느 부락에서 동원되였는지 백발이 성성한 로인도 있었고 어린애를 업은 아주머니도 있었다. 그들은 모두 탄약 상자를 지고 이고 걸었다.

이윽고 짐'군들의 뒤에서 총을 멘 왜놈의 군대 두 놈이 버드 나무 채찍을 휘두르며 나타났다. 이때 옹 동무와 리 동무는 싸창을 들고 벼락 같이 두 놈에게 달려 들었다.

그리고 그들은 짐'군들에게 웨쳤다。

—여러분! 앞에 가는 사람들에게 어서 뒤로 돌아 서라고 전하시오—

두 놈의 적병은 불의의 공격을 받고 벌벌 떨었다. 짐'군들은 천만 뜻밖에 유격 대원들을 만나 죽음 속에서 살아난 기쁨과 감격에 눈물을 흘리며 반가워 하였다.

리 동무는 적병 두 놈을 짐'군들의 앞에 세우고는 대렬을 따라 밀영지로 승리의 행군을 계속하였다.

그들이 산을 넘어 산속 깊이 자리를 잡고 휴식하기 시작한 것은 어둡기 시작하였을 때였다.

밤은 깊었으나 우둥'불 주위에 모여 앉은 대원들과 인민들은 피로의 기색도 없이 서로 이야기를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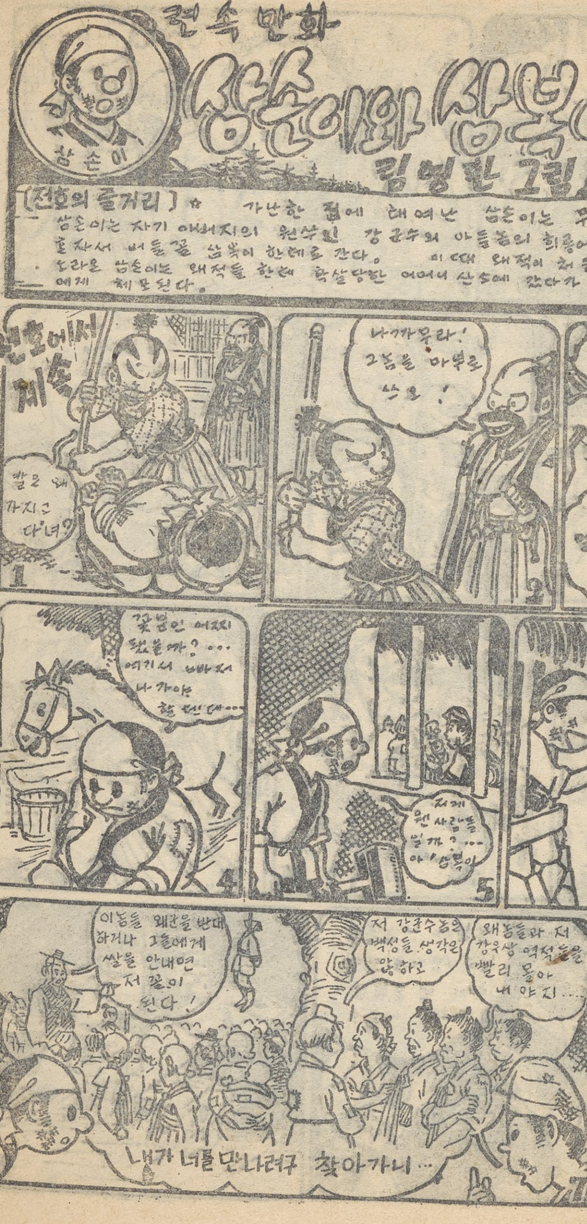
—나는 이번에 처음으로 전투에 참가했습니다. 처음 참가한 전투에서 아버지의 원쑤를 갚았습니다. 이것이 제일 기쁩니다. 김 일성 장군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였습니다. 《인민을 떠나서는 승리도, 조선 독립도, 혁명도 완수할 수 없다》고, 나는 이 말씀을 언제나 기억하고 아동단 사업도, 공청 사업도 했습니다. 또 그 말씀이 오늘 첫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용기와 승리의 신념을 키워 주었습니다.—

우둥'불 주위에 모여 앉아 젖은 옷을 말리우며 인민들에게 리 동무는 이렇게 얼굴을 붉히며 말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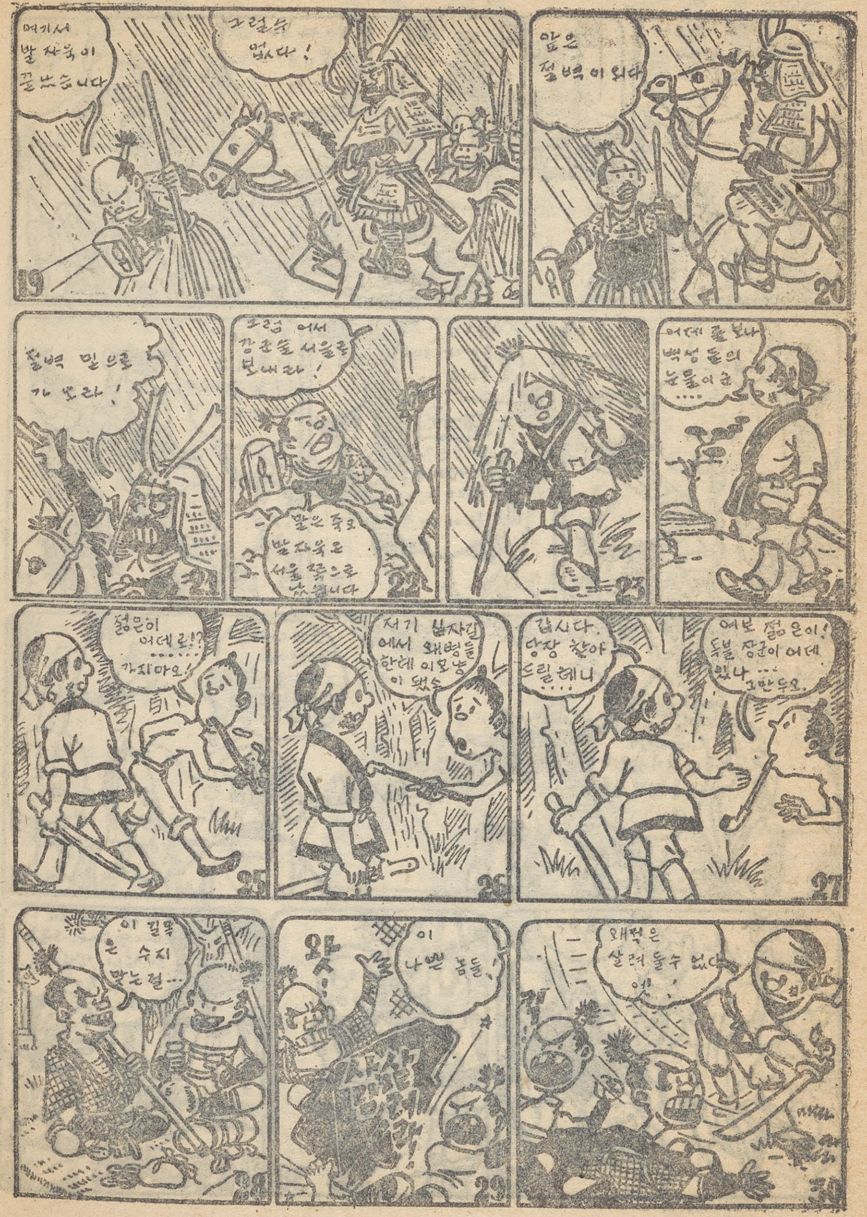
로력의 열매

1년보다 많은 로력 공수

이제 열 아홉살인 젊은 민청원 임 경수 동무는 신천 새날 농업 협동 조합원이다. 그는 지난 1년 동안 447 공수의 일을 했다. 하여 분배도 그중 많이 탔는데 벼만 하여도 1,800 여 키로를 분배 받았다. 그는 시간을 합리적으로 리용했다. 논 밭으로 나가고 들어 오는 시간도 거저 보내지 않고 길'거리에 널려져 있는 가축들의 분뇨를 몽는데 썼다. 그리고 삽이나 호미, 쇠스랑 같은 연장도 작업 나가기 전과 후에 반드시 살피고 수리함으로써 작업 시간을 최대한으로 리용할 수 있었다. 임 경수 동무는 지금 새 해 영농 준비에 힘을 다하고 있다.




헤헤…
조선 아가씨
한테 매맞는 것
좋소 좋소…
이 개 자식아!
그래서
꽃분인
아직도…
응
좋은 수가 있어
삼손아!
오늘밤에
…
그날밤
대장님!
큰일났소.
내 옷과 말을 가지고
그 젊은 놈이
…
예!?
마부 대장이
도망치다!
누구냐?
서라!
우악!
꽃분이
빨리!
삼복아 난 놈들을
달고 딴데로 달릴
테니 넌 꽃분일
데리고 서울로…


여기서
발자욱이
끊났습니다
그럴수
없다!
앞은
절벽이 외다
절벽 밑으로
가 보라!
그럼 어서
장군을 서울로
보내라!
말은 죽고
발자욱은
서울 쪽으로
났습니다
어데 를 보나
백성 들의
눈물이군
….
젊은이
어데로!?
……
가지마오!
저기 십자길
에서 왜병들
한테 이모양
이 됐소
갑시다.
당장 찾아
드릴테니
….
여보 젊은이!
돌불 장군이 어데
있나…
그만두오.
이 길목
은 수지
맞는걸…
왓!
이
나쁜 놈들!
왜적은
살려 둘수 없다
엣!



젊은 심장의 고백

밤도 이슥해졌다. 방안엔 우리 둘만이 앉아 있었다. 로동자들은 대개 영화 구경들을 나갔다. 그래서 합숙은 어느 방이나 조용하였다.

뻬찌까에서는 따사로운 김이 가볍게 풍기였다. 방에는 침대가 너덧개 가지런히 놓여 있는데 두툼한 마다라스가 깔리고 그 우엔 솜털이 보시시한 노란 모포가 두장씩 덮여 있었다.

벽에는 화보에서 오려낸 건설자들의 사진들이 붙여 있었다.

—나는 지금도 이따금 내가 어떻게 그런 수치스러운 길을 걸어 왔을까? 하고 생각하면서 몸서리 치고 애달픈 심정을 쥐여 짠답니다. 그런 꿈이 또 어데 있었겠습니까?

올 나이 열아홉살인 장 홍기 동무는 그 작으마하고 까무잡잡한 얼굴을 붉히면서 때로는 돌덩이처럼 틀어 쥔 주먹으로 가슴을 치기도 하면서 말을 잇는 것이였다.

—나는 전쟁 시기에 초중을 다니다 말고 한 공장의 기능공 양성소에 들어 갔습니다. 선반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였지요. 3년 동안 그 공장에서 나는 일했습니다. 나는 이 기간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무수한 날을 이런 저런 핑게로 태공하였습니다. 참으로 습관이란 무서운 것임을 나는 오늘 깨닫고 있습니다. 그해 이른 봄이였지요. 딴 공장으로 나는 옮겨 가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공장 사정이였습니다. 많은 동무들이 본래 공장의 시설을 따라 옮겨 갔습니다. 나만은 지시에 응하지 않고 제멋대로 로동 생활을 박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전쟁도 끝났고 생활에 다소나마 여유가 생겼고 해서 마음이 잔뜩 들뜬 때문이였습니다. 로동이 싫어졌습니다. 편안히 놀고만 싶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평양으로 나왔습니다. 허지만 일은 하지 않고 사람이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그러나 나는 평양 거리를 정처없이 방황했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편히 놀고 유족히 살그

런 꿈과 그런 길만을 찾았드랬습니다. 그런 꿈과 그런 길이 그 어데 있겠습니까?

나는 하는 수 없이 평양에서 가까운 기양으로 갔습니다. 거기에 있는 농기계 제작소에 취직하려고 말입니다. 기양에 도착한 날 밤이였습니다. 나는 어느 개인 려인숙에 숙박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나는 김 봉춘이란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의 신변과 옷차림은 훌륭하였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그는 날파람이 아주 날쌘 불량 청년입니다. 일하지 않고 남의 것을 제것으로 능숙히 만드는, 그래서 먹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날밤 그는 나를 유혹했습니다. 그에게는 충실한 동료—말하자면 제자이겠지요. 그런 손발을 맞추어 주는 역이 필요했던 모양입니다. 땀 한방울 흘리지 않고서도 그처럼 옷차림 좋고 돈을 물쓰듯 하는 봉춘이—이 봉춘이가 마침내 나에게는 부러운 대상으로 되였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그의 나에 대한 유혹이 성공한 셈입니다. 나는 봉춘이를 따를 것을 이날밤 말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로 부터 1년반 동안 나는 평양과 평남도 여러 고장을 구름처럼 떠돌아 다니면서 불량 생활을 하였습니다.—

홍기는 말을 문뜩 끊었다. 그리고 책상 우에 내 놓은 나의 담배갑에서 한대를 꺼내 들었다. 그는 나를 바라 보며 빙그레 웃는 것이다. 그것은 용서를 비는것 같았다.

—어서 피시요!—하고 나는 말했다.

—사실 담배를 삼가하는지 몇달 됩니다. 그만 기자 동무에게 나의 심정을 드러내 놓다 보니 어쩐지 한대 피울 생각이 간절합니다.—

그는 깊숙이 연기를 빨아들이더니 머리를 휙 돌려 서리낀 창께로 성급히 내 뿜었다. 그는 인차 불을 껐다. 그리고 다시 빙그레 웃으며

—그런 생활이 나를 복되게 해줄리는 만무 했습니다. 어느 한 순간인들 마음과 몸을 펴보지 못했습니다. 거리에 다니는 사람마다 나를 주목하는것 같고 심지어는 하늘과 땅에도 눈이 있어 나의 죄행을 저주하는 것 같았습니다.

나의 하루 하루 생활은 말할 수 없이 불안한 것이였습니다. 거리를 의젓이 다닐 수 있는 사람들이 자꾸만 부럽기만 하였습니다. 나는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싫증을 느끼기 시작하였지요. 이러한 시기의 어느 날이였습니다. 나는 이런 일에 부닺치게 되였습니다.

마침 일요일이였지요. 나는 선박 장마당에서 회중 시계를 차고 있는 한 어른을 보고 뒤를 따랐습니다. 참으로 흉칙한 결심을 한 나는 손님들이 번잡한 곳에서 그의 호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만 그 분에게 손목을 잡히였지요. 의외에도 그분은 따뜻한 어조로 말합니다.

—동무 못쓰오. 자 나하구 같이 갑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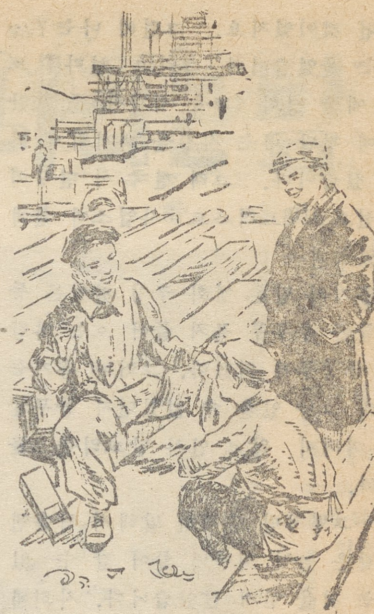
나는 내무서로 끌고 가는 줄로만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나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는 그의 안해인듯한 녀자한테

—거 동생이 벗어 놓은 옷이 있지. 그걸 이 동무에게 입히시요—합니다.

그분은 바로 평양 시 민청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였습니다. 정말 이 분이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나는 그의 집에서 한 가족 처럼 지내게 되였습니다. 그는 짬만 있으면 나를 건설장으로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하는 젊은 민청원들을 나에게 소개시키면서 그들의 생활을 내게 들려 주게 합니다.

하루는 그분과 함께 나는 한 건설 트레스트로 갔습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한 목공을 만났습니다. 목공은 제대 군인이 였습니다. 그는 전쟁때 적기 여러대를 떨군 이야기를 들려 주었습니다. 그 제대 군인은 적기와 가슴을 맞대고 총불을 놓은 것은 오직 자기의 가슴에서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불타 오르기 때문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처럼 목숨을 내걸고 적과 싸울제 가슴 뜨겁게 사랑한 조국이 오늘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새 건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고향인 삭주에도 가지 않고 제대하는 길로 트레스트에 왔노라고 합니다.

돌아 오는 길에서 시 민청의 그는 나에게 그 목공이 바로 공화국 영웅 김 계화 동무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나는 다시 한번 놀랬지요. 영웅쯤 되면 자기가 소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편안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텐데 왜 하필 목공으로써 땀을 흘리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게 되였던 것이지요. 그러나 나의



이 의문은 풀리였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나라의 과거와 오늘에 대한 그의 해설에 의해서입니다. 나는 그의 이야기를 듣는 한편 그 분이 읽으라고 내주는 책을 보면서 정말이지 우리 나라가 앞으로 어떤 사회로 발전되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남의 재산을 훔쳐 먹을 수는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였습니다.

이럴때 나는 강동의 누님 한테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누님은 원쑤들의 폭격에 돌아 가신 어머님을 가슴 아프게 상기시켰습니다. 어머님은 돌아 가실 때 나를 앉혀 놓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것을 간곡히 말씀하

셨던 것이였지요. 그런데 나는?… 나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얼마후 쏘련 예술 영화 《교육 서사시》를 보았을때 정말 나는 자신을 뼈저리게 뉘우 쳤습니다. 그래 결국 시 민청의 주선으로 8트레스트 3사업소에 들게 되였는데…

홍기의 말은 영화 구경 갔었든 동무들이 우루루 몰켜 들어 오는 바람에 중동무이 되였다. 그러나 홍기는 도제 그냥 있을 수 없었던지 동무들을 꺼리지 않고 인차 말끄리를 물었다.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처음엔 나같은 놈이 직장에 들어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끼친 죄악이 태산같은 내가 월급을 타고 쌀 배급을 타 먹으면서 일한다니 꿈만 같았지요. 사실 나는 트레스트에서 받아 주지 않을 줄 믿었습니다. 그러나 아…—그는 어떤 충동에서인지 숨이 가빠 오르는듯 싶었다. 그는 나의 손목을 덥석 잡았다.

—그러나 그후의 일에 대해서는 묻지를 마십시요. 트레스트는 나의 과거를 캐지 않았고 그리고…나는 이때 정말 깨달았습니다. 우리 나라는 얼마나 고마운 나의 어머니며 아버지인가고 생각하면서 나는 밤'잠을 못자고 울었습니다. 우리 나라의 따뜻한 사랑은 다시는 그 어떤 마수도 나를 험악한 길로 당길 수 없게끔 나의 량심을 굳게 다져 놓았지요…

우리가 헤여질 때였다. 홍기는 손'바닥을 나에게 보이면서 영원히 꺼질 줄 모르는 불처럼, 아직 상기된채 뜨거운 얼굴 가득히 열정에 넘치는 웃음을 담고 어조를 높이는 것이였다.

—굳은 살이 백였지요. 이 굳은 살은 얼마나 떳떳한 것인지 모릅니다. 나는 오늘도 동평양 다층 주택 거리의 하수도를 묻으면서 눈'시울이 뜨거웠지요. 이 손이 이제야 제 세상을 만났다고 말입니다. 봉춘이가 지금 어데 있는지는 몰라도 좌우간 그도 나와 같은 갱생의 길을 걸으리라고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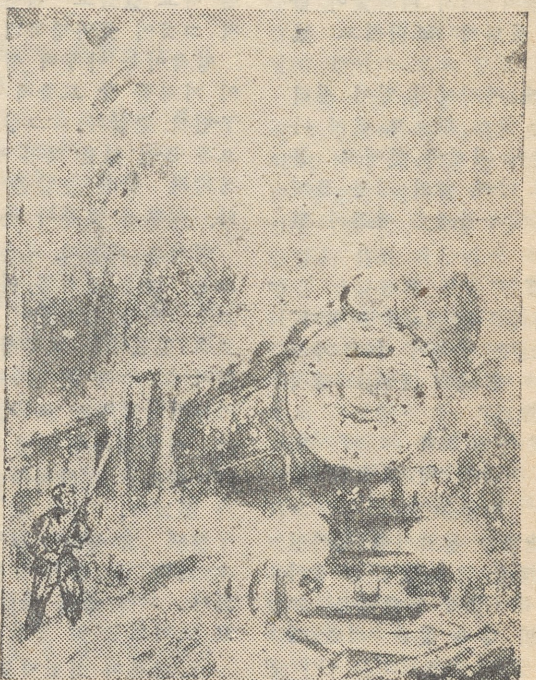
나는 그와 악수하면서 그의 손아귀의 억센 힘을 갑개 무량하게 느꼈다.

본사 기자 송 정



함박눈 나리는 밤

황 달하



함박눈이 나린다.

해안 연선을 달리는 라도행 혼합 렬차가 신천역을 떠난 것은 자정이 퍽 지나서였다. 차'간은 번잡하였다.

휴가로 부터 돌아 오는 전사 박영석은 빨갛게 달은 난로 옆에 앉아 얼마 전부터 떠들어 대고 있는 한 중사의 말을 심드렁하니 듣고 있었다.

사람들이 하나 둘 그의 곁으로 모여와 앉았다. 그는 더욱 신이 나서 짓거려댔다.

그러다가도 그는 기차가 홈에 들어 서기만 하면 황급히 밖으로 뛰여 나갔다가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오르군 하였다.

—자 이야기를 계속할가요?

중사는 모여선 사람들을 비집고 난로 옆에 와 앉으며 호탕 하게 웃었으나 영석에게는 어쩐지 그가 내심 퍽 초조하며 불안해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금방 떠난 정거장의 파란 전등이 헤엄치듯 지나갔다. 중사는 이야기를 점점 무시무시하게 끌어 갔다. 영석이는 체신없이 자기 자랑만 늘어 놓고 있는 그가 자꾸만 비위에 거슬렸다.

기차의 속도는 훨씬 빨라졌다. 바람 소리가 차창을 스치며 지나갔다. …몇분이 지났을 때였다. 갑자기 빽빽 다급한 기적을 뽑더니 기차는 왈카닥거리며 급정거하였다. 차'간은 심한 요동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유리 깨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났다. 급정거하는 바람에 이야기하던 중사

의 기관단총 총구가 유리문을 호되게 쳐놓았던 것이다.

영석은 저도 모르는새 출입문을 열어 제끼고 날쌔게 승강구로 뛰여나갔다.

어떤 렬차원들은 불이나게 기관차쪽으로 달려 가고 또 어떤 렬차원들은 문어구에 벌쳐 서서 려객들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소리치고 있었다.

그 중사도 제 자리에서 일어 서더니 기관단총을 들고 밖으로 뛰여 나갔다. 등'불들이 기관차 앞에로 몰리였다. 선로 우에 놓인 검은 물체를 둘러 싸고 승무원들은 떠들석 했다.

—장애물?!…—

순간 영석은 등'골이 오싹 해졌다.

선로 우에는 큰 원목이 두개 가로 놓여 있었다. 차'간의 공기는 갑자기 뒤숭숭 해졌다.

어느결에 달려 갔는지 그 중사는 기관차쪽에서 허공에 대고 기관단총 련발 사격을 하고 있었다.

가뜩이나 불안한 분위기에 휩싸인 이때 지나친 짓을 하고있는 그 중사가 어찌나 미워나는지 영석이는 그의 면박을 박아 놓고 싶은 것을 참았다.

한참 후에야 그 중사는 기고 만장해서 기차로 올라 왔다.

—틀림 없이 반동의 짓이랑이. 어디 도망쳤는지… 에이! 내 손에 걸리기만 하면, 당장…

중사는 자기의 기관단총을 기름걸레로 쓱쓱 문지르며 마치 짐승을 놓친 사냥'군처럼 씨근덕거렸다.

기차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사는 체신 없이 또 짓거리기 시작했다.

영석은 창밖을 내다 보며 생각에 골몰하였다. 함박눈은 여전히 펑펑 쏟아지고 있다.

영석이는 중사를 힐끗 쳐다 보았다. 다른 사람들은 아직 불안이 가시지 않은 모양이여서 긴장해 있는데 비해 중사의 얼굴은 너무도 활기를 띠고 있었고 태연하였다. 어쩐지 그것이 못마땅하게 느껴졌다.

영석이는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놈이 기차를 꼭 도중에서 세우기 위해 꾸민것 같았다. 그렇다면 기차안에 오른 놈이 있을 것이 아니겠는가! 영석이의 작은 눈알은 총명하게 빛났다. 이렇게 몇분이 흘러 갔다.

영석은 어쩐지 가슴이 설레였다. 그는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었다. 그는 펑펑 함박눈이 나리는 바깥도 보고 싶었다. 고향땅이 차츰 가까워지자 그는 한자리에 오래 앉았기가 거북했다. 그는 천천히 걸었다. 맨꽁무니에 달린 차'간에 이르렀다. 순간! 영석이의 예리한 눈초리가 빛났다. 그의 눈'길은 마지막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안경알을 닦고 있는 한 신사의 신발에서 딱 멎었다. 그의 몸은 탄탄한 근육덩어리로 조여드는 것 같았다.

그 신사의 신발에는 아직 채 녹지 않은 눈이 묻어 있었기 때문이다.

저자가 바로 기관차가 정지했을 때 오른 놈이 아니겠는가?

선로 우에 가로 놓인 원목, 기차의 급정거, 함박눈이 채 녹지 못한 안경 낀 신사의 신발, 이 모든 것들은 이 사건을 풀 수 있는 열쇠로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영석은 그 신사를 빤히 살펴 볼 수 있는 곳에 자리를 잡고 앉아 신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고 계속 동

정을 살폈다. 그 신사의 두리번거리는 눈알은 안정을 잃고 있었다.

기차는 기적을 울리며 철교 우를 건느기 시작했다.

젊은 렬차원이 나타났다.

—여러분 중에 의사가 계시지 않습니까? 군인 동무 한분이 갑자기…

그는 초조한 눈으로 주위를 휘 둘러 보았다.

—제가 의료 기관에 있습니다. 어디 가 봐드릴가요?

뜻밖에 그 신사가 불쑥 일어 서며 렬차원의 눈치를 살폈다.

영석이도 슬그머니 그들의 뒤를 따랐다.

위급한 환자는 그 중사였다.

중년 신사는 모여든 군인들을 안경 넘어로 깔떠 보며 묵묵히 중사의 맥을 짚어 보고 배를 만져 보았다. 영석에게는 그 솜씨가 어쩐지 어색해 보였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경련입니다.—

환자는 약간 진정되였다. 중년 신사는 안'지갑에서 곱게 접은 조그마한 약 봉지 하나를 꺼냈다.

—이걸 잡수시면 곧 안정될 것입니다.—

이윽고 중사는 헛구역질을 하더니 게우고 싶다고 비칠거리며 변소로 달려 갔다. 영석이는 모든 것을 단정해 버렸다.

영석은 예감을 느끼며 그의 뒤를 따라 변소로 갔다.

변소 안에서는 헛구역질 하는 소리도 구토하는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잠잠하였다.

영석은 남의 눈을 피해 금이 난 유리 틈새기로 안을 들여다 보았다.

영석은 하마트면 《앗!》하고 소리칠번 하였다. 촉수 낮은 불그레한 전등'불에 비친 빙그레 웃고 있는 중사의 얼굴과 실룩거리는 두툼한 입'술, 무엇을 쏘아 보는 듯한 주린 짐승같은 눈초리, 그는 약봉지를 펼쳐 들고 그 안에 적혀 있는 무엇을 유심히 들여다 보고 있었다….

그놈들은 미 공군 직속 정보대에서 파견되여 온 간첩으로서 자기들의 공작이 꼬리를 잡힌 것을 눈치채고 황급히 바다로 해서 도망치려던 심산이였다. 그래 중사로 변장한 간첩은 신천 지구에서 공작하던 안경낀 간첩놈과 신천 다음 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갈 데 없이 안경낀 간첩놈이 발각되여 내무원들의 추격을 받게 되자 산으로 도망쳤다가 도중에서 기차에 오르기 위해 선로 우에 원목을 가로 놓고 기차를 정지시키고 뒤로 해서 기차안에 기여 올랐던 것이다. 이러한 방법은 놈들이 첩보 훈련을 받을 때 이미 배운 것이였고, 중사로 변장한 간첩이 기관단총 련발 사격한 것도 자기가 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는 것을 실토했다.

약첩처럼 접은 종이에는 자기들의 비밀 집결소에 대한 략도와 암호가 그려져 있었다. 영석의 높은 경각성과 총명성이 이 두 간첩을 체포케 하였다.

영석은 구멍난 풀무처럼 헐떡헐떡 가쁜 숨을 쉬고 있는 악당들을 경멸하면서 말했다.

—함박눈이 당신네 연극을 망쳐버렸군 그래—



우리 나라에서 처음 만든 총 천연색 예술 영화《사도성의 이야기》는 신라 분왕 시기 동해안 사도성에서 있은 이야기를 무용극으로 만든것이다.

사도성 성주의 딸 금이 (인민 배우 최 승희)는 화랑들의 무예 경연에서 순지의 순박하고 정의로운 모습에 감탄하여 그를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금이의 계모와 아한의 계책에 의하여 순지는 그만 파면당하여 사도포로 간다. 그리고 거기에서 어민들과 함께 고기잡이 하며 살아간다.

이때 왜적들이 갑자기 쳐 들어 왔다. 원쑤들은 가는 곳마다에서 불을 지르며 인민들의 생활을 짓밟아 놓았다.

왜적을 무찌르겠다고 호언 장담하며 관군을 인솔하고 출정한 아한은 위기에 처하였다. 마침내 사도성의 운명은 위급하게 되였다.

조정의 관군은 더는 오지 않고 성주는 신병으로 누웠다. 바로 이때 조국애에 불타는 금이는 녀자의 몸으로 용약 손에 칼을 들고 원쑤 격멸의 마당으로 나선다. 한편 순지는 어부들의 피끓는 애국심을 불러 일으켜 의병을 조직하고 그들의 선두에서 싸우며 적에게 포위된 아한을 구출한다.

량손에 칼을 쥐고 결사적으로 싸우던 금이 적장앞에서 위험하던 순간이였다.

이를 본 순지는 비호같이 달려 들어 금이를 구출한다.

이 영화는 사도포 어민들이 왜적의 침략으로부터 조국 강토를 지켜내고 다시 평화로운 생활을 즐기는 우리 선조들의 높은 애국심을 보여 준다.

편집 위원 김 학 연(주필)
김 상 민 김 수 백 박 춘 실
양 동 섭 조 채 현 현 영 호

청년생활 제 2 호 1957년 2월 20일 인쇄
발행소 민 주 청 년 사 1957년 2월 25일 발행

인쇄소—로동 신문 출판 인쇄소 (값 20원) ㄱ—40362 50,000부

대지엔 봄빛이 깃들기 시작했다、 박천군 동흥 농업 협동 조합에서는 알곡 증산을 위하여 새해의 영농 준비에 일손이 바쁘다。

(사진 우) 벼와 옥수수의 우량 종자 선종에 나선 조합 민청원들。

(사진 아래) 조합 민청원들이 전야에 퇴비를 반출하고 있다。





어름판에 약동하는

—민청 창립 11주년기념 전국 빙상 경기대회



박 재 춘 (1위)
협회부 남자
5천 메터

고 경희
협회부
1천
1천5백

옥 청 자 (1위)
초중부 녀자
1천 메터
1천5백 메터

최 충
대학부
1만